

진리와 정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난무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들도 그에 따라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3장 18절

이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6월 25일 (토) 제 158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사건의 실재와 진실, 정확하게 보도해야!

WP, “뉴스매체가 독자확보 위해 다른 해석으로 사건 진실 흐린다” 경고 CT, 월드, 총기 난사 범인의 모순된 삶 보도와 함께 “기도할 때” 제안

지난 주,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플로리다 올랜드 게이 바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언론 매체의 속보 처리 방식이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일 오전 10시 50분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각, 사망자 수가 2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던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논평가들은 확신에 가득 찬 정파적 선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총기 규제를 주장하던 쪽에서는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입법 실패로 인한 참사라고 말했고,

이슬람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슬림 전체를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동성애자 권리 단체는 LGBT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은 뉴스 매체나 SNS가 자신들의 관심사를 투영하기 이전에, 사건의 실재와 진실만을 보도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한다(Guns? Terrorism? Hate crime? Media go to their corners in reporting on Orlando).

뉴스 매체는 “비난의 정치”를 확산시키는 확산기 역할을 했다. 폭스뉴스에 등장한 한 대테러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아직 성명을 내지도 않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올바름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글로벌 지하드의 일환으로 전개된 “군사 공격”이라고 단언했다.

CNN에 출연한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이번 사건이 명백한 테러라고 말했다. 사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시점이었음에도, “우리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사건이 게이프라이드 주간에 게이 클럽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나, 여러 매체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총기 규제와 이번 사건을 연결하는 보도 역시 일부 매체에서 등장했지만, 거의 언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소셜미디어 상의 싸움도 곧 폭발했다. 버즈피드의 제임스 불은 트위터를 통해 “동성애 혐오자, 이슬람 혐오자, 반유대주의자들이 최악의 코멘트 경쟁을 벌일 날”이라며, “오늘 같은 날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그의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즉시 인터넷상에서는 각자의 성향에 따른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CNN에서 21년 근무한 프랭크 세스노(Frank Sesno)는 보도에 있어, 큰 사건 발생 직후의 시간이 가장 어렵고 위험하며, 확인된 사실이 부족하더라도 매체들이 방송



올랜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선부른 보도가 정치적 현상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사건 현장에 모인 보도자들.

시간과 지면을 매꾸기 위해 “추측과 추정”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매체의 시청자와 독자가 무엇을 듣고 보기를 원하는가에 의해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이다. 미국언론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의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 소장은 경영상의 이유로 많은 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매체가 뉴스를 “보도하기보다는 이용한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 또는 “테러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매체 소비자들이 최대한 회의적인 자세로 뉴스를 걸러 듣는 수밖에 없는 걸까?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디지털 저널리즘 센터의 에밀리 벨(Emily Bell) 센터장은 그 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의 매체들이 무분별한 속보 추구의 위험성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건에서 이때의 교훈이 빛을 발했다는 설명이다.

<3면으로 계속>

리더가 먼저...공동체 각자가 다스려야!

리더십저널, 노먼 라이트의 “분노 다스리기” 소개

노먼 라이트(H. Norman Wright)는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결혼, 가정 상담가이며,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작가다. 그는 '기독교가정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왔다.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하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행복한 부부생활 프로그램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또한 탈북신학교와 바이올라대학교 결혼가정상담대학원의 교수로 오랫동안 섬겨오고 있다.

그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나 부부 사이에서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만큼 분노는 여러 부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격분이 돼 한 사람을 파괴하고 복수를 하도록 몰아가며, 전쟁이 시작된다. 분노가 내부로 깊이 파고들면 이는 원망이 돼 쓴 뿌리를 낳고, 모멸감, 상해, 학대받은 감정에 대한 불쾌감이 쌓이게 된다.

분노는 내면의 깊은 위장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왜곡된 메시지 분노 인정하고 중립적 표현법 사용하며 기록해서 문제근원 파악

분노가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서 관찰될 때, 우리가 택하는 해결방법은 종종 과잉반응이거나 무반응이라는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 분노는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분노의 모든 부분을 긍정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잉반응이며, 분노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 양 차부해, 마치 분노란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반응이다.

분노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분노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핵심 감정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분노를 표출하면 분노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분노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절할 수 있다. △분노의 책임은 상대방이 아닌 스스로에게 있다.

분노는 부차적인 감정이다. 이는 더 깊은 내면의 감정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분노의 뿌리가 되는 더 근본적인 감정들은 주로 두려움, 상처, 좌절이다. 분노가 감지될 때,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그 겉모습 이면에, 과연 무엇

에 대해 두려워하며, 무엇에 의해 상처받고, 무엇에 있어 좌절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분노의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분노는 내면의 더 깊은 감정을 위장하는 겉으로 드러난 왜곡된 메시지일 뿐이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감정을 직시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노는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이지만, 두려움과 좌절, 상처는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영역이다.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 현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던 행위가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면적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놀랍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동체는 더 손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렇다면 이미 분노한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미 분노한 사람에게 그것이 왜곡된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16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성경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성경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5
admissions@wmu.edu, 213) 368-1005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열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 789-1301
대표 편집장: 박사 myengel@ebschips.com



2면 학생 잠재력 키울 대안교육 절실하다!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인/티/뷰 황의영 목사(SBM 대표)

HAPPY MINISTRY CONFERENC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행복목회 컨퍼런스

백동조 목사 (목포사랑의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힘든 이민교회 현장에서 행복목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입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셀을 통합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행복목회입니다.

대상: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역자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당일등록: 9~10AM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150 S. Brookhurst Dr., Fullerton, CA 92833

일시: 2016.8.15(월) 10AM ~ 8.16(화)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시론

영적 지도자의 자리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강하게 자랄 미래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산양은 결국 협곡 바닥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 어디에도 풀이 없기에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 "인"자와 생명 "생"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라고 명받은 기간을 사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입니다. 살다보면 결실을 꿈꾸며 힘들지만 땅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봄, 뜨거운 햇볕을 통해 농익어가는 여름,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가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량한 사막 광야와도 같이 추운 겨울도 지나게 됩니다. 이때 나무 잎은 다 떨어지고 안쓰러울 만치 민낯을 드러내며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무들을 바라보니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휘청거림은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몸짓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 힘없이 왔다갔다할 때마다 저 깊은 뿌리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끝까지 영양분들을 위로 끌고루 밀고 올라가 전해줘 봄날의 푸르른 잎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피해 갈 수 없는 계절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역경과 환란의 바람이 비껴가거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 역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경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정의를 역경을 겪은 후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역경의 바람을 뚫고 나가 더욱더 강인해졌다면, 그 역경은 황량한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인생을 세우고 이끌고 나가는 건설자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그 역경은 인생을 제자리에 멈춰 세우고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작용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다가, 이들이 재건후 흥왕해져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던 산발랏, 도비야 등등의 분노와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다 못해 방해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흠뻑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이 달려들어 우리를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등등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들 중심에 꿰어 서서 조용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고 말하며, 백성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파수하도록 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 땅 정탐꾼 10명이 돌아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와 같더라. 결론은 점령 불가"라고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 의식"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렘과 같이 "다 맞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밥" 의식입니다.

바라봄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피하여 산 아래 편한 곳을 바라보고 타협하며 내려가는 산양과 같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면 안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산위를 올라가는 산양처럼 "우리밥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적과 억울함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서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바라봅시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자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우리들도 역시 그 영적인 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것이고, 그 도성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치료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될 것입니다.

학생 잠재력 키울 대안교육 절실하다!

뉴욕타임스, 공립교 '영재반' 선발기준으로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선발방법 소개

미국 공립학교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영재("gifted")로 분류되는 학생은 백인과 아시아계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깜짝 놀랄 만한데, 초등학교 3학년 흑인 학생이 영재반에 들어갈 확률은 도레 백인 학생이 영재반에 들어갈 확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제이슨 그리섬 교수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크리스토퍼 레딩의 연구에 따르면 히스패닉 학생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최근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한 것도 이런 불공평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Broward County)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 학생 선발 방법을 소개한다. 왜냐하면 '영재'로 뽑히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Why Talented Black and Hispanic Students Can Go Undiscovered).

플로리다 주에서도 규모가 꽤 큰 학군인 브로워드 카운티(Broward County)에서 영재 학생 선발 방법을 바꾸자 '영재'로 뽑히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2배 증가했다.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시가 속한 브로워드 카운티의 학군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봐도 많을뿐더러 학생들의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며,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도 50%가 넘는다.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영재반에 배정된 3학년 학생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을 합쳐도 그 비율이



연구진은 교사나 부모가 영재반에 들어가는 관문인 IQ 테스트에 재능 있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을 추천할 가능성이 작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정해진 교과과정 외에 보충교재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장려했다.

반면 공부를 끝낼 하지만 IQ

부족했다. 그래서 학군 내에서 실시하는 표준화된 학력평가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린 학생들로 영재반의 나머지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영재반에 들어온 우등생 가운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게다가 이 효과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됐다.

게다가 카드와 줄리아노 교수는 많은 영재반 학생의 성적이 크게 올랐지만, 그렇다고 보통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성과를 얻는 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 수준이 높은 영재반 수업이라고 해도 보

영재생과 우수생, 함께 교육하면 인종간 교육, 학업성취도 격차 줄여 표준화 절차 따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 토대로 영재반 구성

28%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줄이고자 브로워드 카운티는 2005년 모든 2학년 학생에게 짧은 비언어 능력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은 IQ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교사와 부모가 똑똑한 학생을 직접 영재반에 추천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카드와 마이애미 대학의 로라 줄리아노는 이런 정책 변화가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험을 치른 모든 2학년 학생 중 영재반에 뽑힌 히스패닉 학생의 비중은 2%에서 6%로, 흑인 학생의 비중은 1%에서 3%로 세 배씩 증가했다. 백인 학생 비중은 6%에서 8%로 조금 높아졌다.

새로운 선발제도가 더 많은 영재를,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영재 어린이를 더 잘 발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사나 부모의 판단에만 의존해 학생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스트 점수가 조금 낮아 전에 영재반에 들지 못했던 학생들은 영재반에서 수업을 들은 뒤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한 학교에 단 한 명이라도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IQ 테스트 성적을 기록한 학생이 있으면 영재반을 꾸려 영재를 비롯한 우수생들을 가르치도록 한 브로워드 카운티의 독특한 규정 덕분에 이런 학생들이 큰 혜택을 입었다.

브로워드 카운티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영재 학생들만으로 영재반을 꾸리기에 영재 학생이

통반 수업보다 특별히 비싸지는 않았다. 학생 수도 같았고, 영재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급여가 더 높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순탄하던 이야기가 암초를 만났다.

금융 위기 이후 쓸 수 있는 예산이 잇따라 줄어들어 브로워드 카운티는 여러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모든 학생에게 표준화된 시험을 치러 영재반을 구성하던 방식을 중단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고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사건의 실제와 진실, 정확하게 보도해야!

(1면에서 계속)

이번 사건에서도 이 같은 신중한 접근이 눈에 들어온다. CIA 출신으로 CNN에서 일요일 아침 논평을 맡고 있는 필립 머드(Philip Mudd)는 이번 사건을 파리 테러와 나란히 놓으려는 움직임에, 아직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NPR은 최근 청취자들에게 자사의 속보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벨 센터장은 이런 사건에 적용할 프로토콜이나 모범답안이 아직 미국 언론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큰 사건을 성숙하게 소화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언론의 보도 행태가

오하는 마틴의 삶이 한마디로, “모순에 가득하다”고 전한다.

오마르 마틴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부모님에게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무슬림이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슬람



“음모이론”이라도 독자 주목 받기 위해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 난무....

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슬프게도 배움의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리라는 희망은 여전히 있다.

그렇다면, 대안 언론으로서 기독교 언론들이 보도 행태를 살펴보자.

월드 지는 이번 사건의 범인인 오마르 마틴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Omar Mateen: A life of contradictions). 친구들이나 이혼한 아내나 가족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라 고지직할 정도로 완고한 무슬림으로서 게이를 극도로 혐

에 농담을 걸면, 칼을 빼어들고 죽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전형적인 무슬림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모순 덩어리였다.

마틴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과 2009년 4월 결혼했으나 2011년 7월 이혼하였다. 총기 사건이 있는 후, 마틴의 전 부인 시토라 유수파이(Sitora Yusufiy)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중 마틴이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에 의하면, 마틴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스테로이드

를 투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성애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재혼했으며 3살이 된 아들이 있다. 그는 2007년부터 플로리다 주피터에 있는 사설 경호업체인 G4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측면들이 마틴에게

있고, 그러한 복잡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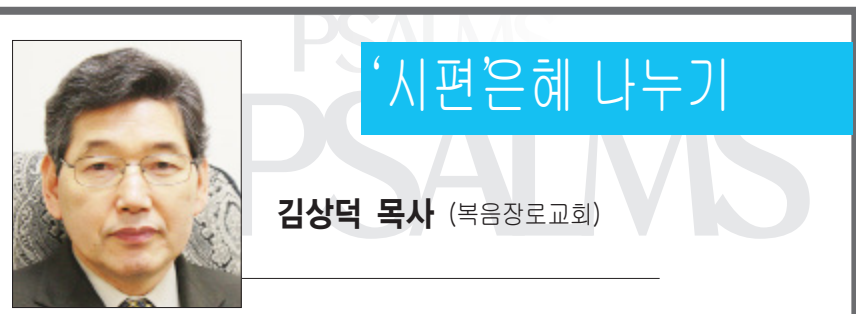
크리스치너티투데이(CT)는 더 나아가 먼저 직접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SNS에 드러난 긴급한 메시지들을 제외한, 간접적으로 순식간에 증폭되는 SNS의 문제점을 지적한다(How Social Media Fails Our Orlando Grief: CT executive editor Andy Crouch on why words on the internet are no substitute

for in-person presence).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영향 받지 말고, 먼저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에서도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아픔과 비극을 극복해가자고 제안한다(A Meditation on the Orlando Shooting: This latest attack is part of a pattern, and the pretext for a remarkable prayer).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 일반 언론은 제각기 일종의 “음모 이론”을 동원해서라도 독자들에게 주목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기에 SNS상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동원되는 바람에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로 분리되고 총기 규제 논란의 책임 유무만이 미국 사회에 가득하게 된다.

총기 난사보다는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삶 자체를 말해 주고, 참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기막힌 현실 즉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에서, “기도할 때”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대안 언론은 기독교 언론만이라는 미국 사회의 현주소가 서글프게 느껴진다!



‘시편’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41편. “영혼의 건강은 소명에 충성하게 되는 길인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간다. 또 이어 4장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미움과 분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로부터 사람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여 죄가 솟아나고 그 죄는 세상 끝 날까지 인간을 통하여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마귀로부터 온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의 인격과 육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는 어둠의 사람, 불행한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3절에 보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이나이다”라고 했다. 죄에는 사망의, 저주의, 불행하게 하는 독이 있다. 그 사망의 독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행의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가 나의 말을 통하여 흐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품고 사는 자요, 사랑이 솟아나서 각자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자다. 스스로가 저주의 독이 솟아나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람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과 같이 그는 나병 환자였다. 스스로 그 몸이 죽어가는 죽을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 안에서 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음을 가득함과 같이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새 생명이신 성령으로 사는 자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죄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마치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움을 받듯이 말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감동함을 입히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채워 주신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능력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힘을 받는다고 하셨다. 능력을 받으라. 그러하여야 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 죄로부터 해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모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신앙생활을 오래하였다고 해서 높은 성도가 되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이다. 고목나무가 되지 말라.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수고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는 자로 살라라.

sangdkim@yahoo.com

학생 잠재력 키울 대안교육 절실하다!

(2면에서 계속)

그러자 특정 소수민족 출신을 찾아보기 힘들던 예전의 영재반 인종 구성이 다시 나타났다.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이 늘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줄어든 것이다.

2012년에 브로워드 카운티는 2005년에 실시했던 제도를 수정해 영재반 선발 제도를 다시 시행했지만, 결과는 예전 같지 않았다. 플로리다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하니 브로워드 카운티에 있는 백인 학생 가운데 8%가 영재 학생으로 분류됐다. 모든 학생이 시험을 쳐서 영재반 학생을 뽑았을 때보다 높았고, 히스패닉 학생보다는 2배, 흑인 학생보다는 4배 높은 수치였다.

수정해 새로 시행한 제도 가운데 심리학자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문화적 출신 배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여기는 비언어 테스트(nonverbal test)를 없애고 이를 언어능력비중을 높인 시험으로 대체한 것이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다. 여전히 부모와 교

사자 영재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정도 시험을 통해서 영재반 학생을 뽑을 때와 달라졌다.

학교 소속 심리학자가 영재반에 들어갈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개인적으로 심리학자를 고용해 자기 자식이 영재반에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한 번에 1천 달러씩 내고 치는 IQ 테스트를 몇 번이고 치게 할 수도 있다. 카드와 줄리아노 교수는 이런 식으로 따로 시험을 치게 하려면 중상층 이상의 가정이 유리하며, 그런 가정은 주로 백인가정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연구자는 IQ 테스트가 저소득층이나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우려한다. 일부 학자들은 교사의 추천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교사의 추천도 얼마든지 편향될 수 있다. 영재 교육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다루는 학술지 “고등교육(The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의 편집을 맡고 있는 심리학자 매튜 맥베는 최근 교사 추천 제도에 대해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썼다. 모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누구도 나서서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방 안의 코끼리”라고 부르는데, 영재 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학생을 추천하는 교사가 인종적 편견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선입견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는 사실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차라리 영재와 우등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예 없애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재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나누는 것 자체가 특히 취약계층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낮아진 기대치에 영영 갇혀버린 학생들의 성취도마저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든 재능 있는 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이 없다면 취약계층학생들은 오히려 더 뒤처질 수도 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전담 과외 선생님의 집중지도를 받으며 매일 구문 수학 문제를 풀고 방학 때는 컴퓨터코딩캠프에 간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런 사교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브로워드 카운티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뒤 나타난 효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더욱 공정하게 영재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영재(gifted) 학생과 우수한(good) 학생을 한 반에 넣고 교육하면 인종 간 교육 격차, 학업 성취도 격차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을 토대로 영재반을 구성하면 교사나 부모의 추천에 의존했을 때 발 굴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의 우수한 아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쉽지 않은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이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것이다.

2016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 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myouth@gmail.com
Fax : 951-928-4017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설립자, GLDI 대표)

새라 김 사모
(TVNEXT 대표)

노형건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이용기장이 선교단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존경합니다. 선교사님!

오랫동안 지내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분은 같은 신학교를 다녔고 다른 한 분은 선교사 훈련을 받고 계셨습니다. 30여년 후 저는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 분들은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중한 분은 1986년에 위클리프(Wycliffe) 성경번역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에 가신 홍성호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UCLA를 졸업한 후에 미국 대기업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홍 선

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컴퓨터 달란트를 통해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성경번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마 미주 최초의 평신도 전문 선교사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사역하셨던 파푸아뉴기니 만다라 섬은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몇 시간 자동차로 이동한 후에 다시 몇 시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오지입니다. 당연히 전기도 없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또한 말라리아, 설사, 고열 등 온갖 질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같이 떠난 어린 두 딸과 그곳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양인들이 경계하는 원주민들과의 사귀, 현지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연구하여 새로운 문자

를 만드는 일, 그 문자로 현지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 부부는 오랜 세월 신실하게 그 일에 헌신했고 2013년 7월에 부족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약성경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은 정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분들은 달라스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캐나다 인디안 선교에 헌신하셨다가 이후 동남아 C국에 선교사로 파냈습니다. 그는 C국의 명문대학에서 우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C국 명문대 교수직을 내려놓은 그

는 한국의 신학교 교수 청빙도 거절하고 다시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C국의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버려진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C국에서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누구에게 보일만한 열매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단지 자신들이 돌보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 선교사 부부와 정 선교사 부부를 잘 알기에 마음에 깊숙이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선교비 모금에 귀재도 아니고 선교대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유명한 분들도 아닙니다. 화려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야망을 포장하지 않았습니

다. 자신들의 이름 석 자를 남기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지난 6일부터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한인선교대회가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한인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실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푸 / 른 / 초 / 장

하경남 목사
(브라질 서울교회)



솔로몬은 7년 성전 공사를 마치

고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11, 12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과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을 필역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와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 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11, 12).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만 모여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은 천 번의 제사를 드린 후 기브온에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천 번을 작정하고 제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까지 드린 제사가 천 번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지 얼마 안됩니다. 찾아오는 사람, 만나

야 할 사람...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999번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인내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산 제사였습니다.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는 없습니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던 솔로몬처럼 영적인 고난은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40:31)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힘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서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다른 데서 교회의 영광을 찾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2.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던 솔로몬처럼 영적인 고난은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40:31)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힘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서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다른 데서 교회의 영광을 찾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3.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울리고 귀를 기울이리니”(13-15).

가나안의 농사꾼들에게 가뭄과 메뚜기와 염병은 재앙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하늘이 막혀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모내기를 할 수 있나요? 수고없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추수철에 메뚜기가 떼로 몰려와 한 해 농사 다 먹

은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는데, 기도할 게 산더미 같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의 영광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13-15).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

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려는 욕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의지의 행동이 들어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은혜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처음엔 아버지께 순종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묻자고 하는 종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이 찬송이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모든 교회되시길 소원합니다.

ipscoreana@gmail.com

“교회의 영광”

역대하 7:11-16

어 처읍니다. 이유도 모를 병으로 사람이 쓰러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재앙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긍휼을 베푸십니다.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부르짖습니다. 그곳이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적게 사용하고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기도할 게 전혀 없으신 예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1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도하며, 셋째 내 얼굴을 구하고, 넷째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잘못된 길을 부인하는 것이 겸비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던 길을 가던 사람이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 자아를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8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크리스천학교에도 “친동성애, 친성전환” 법안에 순종 강요!

아래 두 가지 법안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민주당)에서 미 전역에 합법화 시키고자 하는 수 많은 “Transgender bills”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정책 중 하나로서, 우리 자녀들의 성적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문란의 극치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차세대와 사회의 정신건강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법안들이기에 기도와 ACTION이 절실합니다.

길로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립학교들뿐 아니라 정부의 자금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학교들까지 잘못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을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바마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모든 교육시스템과 학교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몰고 있는 것이지요.

입니다: 1. 주정부의 재정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학교들이 만일 계속 재정후원을 받고자 한다면, 오바마와 그 정부(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친동성애, 친성전환자 정책”들을 학교 전체가 순종하고 준수해야만 재정후원을 계속 받아 학생들에게 그랜트와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안들은 “친동성애, 친성전환” 법안들을 반대하는 “크리스천 가치관 기관(institution)”이 매우 차별적인(discriminatory) 기관이라고 가르치도록 강력히 학교들에게 요구합니다. 3. 크리스천 학교들도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그리고 기숙사 방(Dorm)까지 같은 시간에 함께 사용하게끔 합니다. 즉, 만일 21살 남학생들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면, 그 21세 남학생들을 또 다른 19세, 20세, 21세 여자 학생들이 잠자

Catholic University ΔLABI(Latin American Bible Institute) College

- ACTION TO TAKE 기독교인들은 아래에 적혀있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교육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꼭 SB1146에 veto(반대)하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Members: ΔJose Medina(Chair): (916)319-2061 ΔCatharine B. Baker(Vice Chair): (916)319-2016ΔRichard Bloom: (916)319-2050 ΔRocky J. Chávez: (916)319-2076 ΔJacqui Irwin: (916)319-2044 ΔReginald Byron Jones-Sawyer, Sr.: (916)319-2059 ΔMarc Levine: (916)319-2010 ΔEric Linder: (916)319-2060 ΔEvan Low:

AB1888 법안

AB1888법안은 Tony Atkins & Susan Eggman(민주당)이 지난 5월초에 제출하고 Mark Leno(민주당)라는 친동성애 상원의원이 공동 제작(co-author)한 법안으로, 학생들과 학교가 주/연방 정부로부터 칼 그랜트(Cal grants)나 장학금(scholarship)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biological sex)”이 아닌 “느

SB1146 법안

SB1146 법안은 Ricardo Lara(민주당)가 만들어 제출하고, Mark Leno가 또 공동 제작한 법안입니다. SB1146 법안은 그동안 공립 학교에서도 미국헌법상 주어지던 “Title IX exemptions(종교적 면제)”을 더 이상 대학교나 크리스천 학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친동성애, 친성전환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236년

AB1888, SB1146 법안들로 기독교학교에 그랜트 장학금 금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기숙사방을 남녀 함께 사용하도록

끼는 모든 성별(all gender identity)을 존중하고 그 의 모든 수십 가지의 성별들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을 해야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학교들도, 이런 법적 조항에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주정부나 연방정부로 받던 모든 정부재정을 못 받게 되기에, 학생들에게 주는 그랜트(Grant)나 장학금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는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십 가지의 성별”의 의미는?

뉴욕에서 몇 주전에 통과시킨 31개 이상(앞으로 31개 외에 더 많은 “성별이름”이 나올 예정)의 비정상적이고, 한때는 APA(미국심리학 전문회)에서 “정신질환”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성별(gender)과 그들의 성생활이 “정상”이고 “중중” 받아야 하는 성행위 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사인을 해야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오바마 정부로부터 소송도 받지 않고 재정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성적체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이 오히려 변태적이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망하는

넉게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필수과목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업은 법적으로 excuse/exempt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학생들이 그런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안들은 매우 “차별적”입니다. 법안 내용들을 막연하게 만들어서 종교적 면제를 받을 권리탈탈이 크리스천 학생들과 크리스천 학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슬람 학생이나 천이슬람 교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정부의 조절(control)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 박탈은 있어도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는 박탈이 아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음이 지금 오바마 정부의 참모로 이해 안가는 정책임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알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고 있는 기숙사 방에서 다른 여학생들의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도록 허락해야 하는 게 이 법안들의 정책입니다.

4. 만일 이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들을 “순종-준수”하지 않으면 “주정부에 의해 학교가 소송이 걸리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을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주정부 자금도 연방부 자금도 다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소송과 함께 학교에 주어지던 재정까지 완전히 다 멈출 수 있다”라고 연방교육청(US Department of Education)을 통해 이미 공립학교들에게는 공문이 보내졌고, 크리스천 학교들은 위의 두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는 순간 똑같은 위협적인 공문을 오바마 정부(민주당)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 캘리포니아 Senate Education Committee로부터 이미 경고장을 받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 Δ Biola University ΔSimpson University ΔFresno Pacific University ΔWilliam Jessup University ΔJohn Paul the Great

- (916)319-2028 ΔKristin Olsen: (916)319-2012 ΔMiguel Santiago: (916)319-2053 ΔShirley N. Weber: (916)319-2079 ΔDas Williams: (916)319-2037

이 법안들은 우리 자녀들과 크리스천 학생들, 기독교 학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학생들이 더 이상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괴롭히는 법안들이기에 통과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어 크리스천 학교들에 보내는 사례들이 지난 7년간 계속 늘어나자,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사악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여러 기독교단체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즘 저는 스가라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라 4장에 순금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지요? 과거 박태선 장로가 자신을 감람나무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 성경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스가라 4장에 나오는 스가라가 본 순금등대의 환상은 스가라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 순금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리고 짜낸 기름을 주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관을 통해 연결되어 기름이 투입되면 등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등대를 예수그리스도로 본다면 7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순금등대 옆의 두 감람나무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을 상징합니다. 금촛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감람나무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 두 증인과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 제 23년 재건을 위해 책임 맡게 된 두 명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스킵바벨, 두 감람나무는 오늘날의 교회

한사람은 대제사장이요 종교지도자였던 여호수아요. 또 한사람은 정치 지도자요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인 스킵바벨이었습니다. 스가라 4장 14절에 그해답이 나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발리운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있는 자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성령충만한 일꾼인 여호수아와 스킵바벨을 말합니다. 빛을 발하는 오늘의 지상 교회는 두 감람나무 즉 기름부음받은 성령충만한 일꾼들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담당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과거 전도관을 운영하며 세례시신을 일으켰던 박태선 장로는 원래 남대문교회 집사로서 복을 치며 노방전도를 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이성봉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54년 서울무학교회, 서울 남산교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대구, 부산, 한강 배사장집회를 인도하면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55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의 남산 천막집회에서 박태선은 기성교회의 목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마귀새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1980년대 들어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肉身)으로 이 세상에 온 감람나무 하나님’임을 발표하면서 교명을 천부교로 개칭했습니다. 그는 1990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실을 천부교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육신을 벗고 지금은 낙원에 계신다’고 표현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NCC)는 성명서를 내고 그의 이단성과 교리적 인 탈선을 규탄했고 195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성령충만한 일꾼을 상징하는 감람나무라고 말하다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척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신학의 신학원리를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 적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직유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 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복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학장장 영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마니पुर리(MANIPURI)



전 세계의 1천3백만 마니पुर리족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인도의 북동부에 거주하지만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도 약 119,7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메이테이(Meitheis)라고도 알려진 마니पुर리족은 몽골족의 후예들이며 메이테이어(Meitheis)를 사용한다. 18세기에 여러 번의 전쟁에서 버마인들에게 패배한 후 많은 마니पुर리족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인도 북동부의 마니पुर리 왕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대다수는 영국에 지배를 받게 된 동부 벵갈(East Bengal)에 정착했다. 1947년, 동부 벵갈이 독립을 획득했다. 대부분의 마니पुर리족이 힌두인이지만 동부 벵갈 시민의 대다수는 무슬림들로, 그 지역은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의 동쪽 날개가 됐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에서 탈퇴해 국명을 방글라데시라고 개칭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마니पुर리족은 힌두 스타일을 고수함으로써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 채로 남아 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마니पुर리족들은 북동 방글라데시의 싯헛지역(the district of Sylhet)에 거주한다. 그 지역은 인도의 메갈라야(Meghalaya) 주에 접해있다. 싯헛은 경치가 아름다운 차 재배지와 무성한 열대 밀림으로 유명하다. 방글라데시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평야가 많은 데 반해 이곳 싯헛 지역은 밀림과 얇은 산지들이 많은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마니पुर리족은 농부이며 주된 작물은 쌀이지만 사탕수수, 담배, 오렌지, 파인애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작물도 재배한다. 마니पुर리족은 물고기를 먹지만 힌두전통에 따라 육류는 먹지 않는다. 개인위생에는 아주 세심해서 강가에 마을을 이루어서

세탁과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골지역에서 마니पुर리족들은 자신들의 집을 흙수피에서 막을 수 있도록 대나무 장대 위에 짓는다. 벽은 갈대로 만들어 진흙을 칠하고 지붕은 이엉(thatch)이나 양철판으로 만든다. 마을은 몇 개의 씨족(대가족 단위의 일종)으로 나뉜다. 사람들은 자신의 씨족내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다른 씨족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마니पुर리족은 단일한 사회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층은 인도의 카스트에 맞춰보면 불가촉천민(untouchables)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세력이 없으며 다른 높은 계급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를 위해서 마니पुर리족은 폴로, 보트 경주, 드라마, 춤 등을 즐긴다. 이들의 아름답고 표현이 풍부한 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춤은 실제로는 대화를 노래

로 부르고, 행동들을 묘사하는 해설자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드라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크리슈나(Krishna) 신의 일생에서 따온 것이다. 마니पुर리족은 16세기에 힌두교인으로 개종했다. 그러나 힌두 이전의 종교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힌두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더해 많은 자연의 신들 및 특별히 뱀의 형상으로 지구에 왔다고 하는 신을 숭배한다. 미신적 관습이 마니पु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탉의 발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심지어 "모든 지혜는 수탉의 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속담을 가지고 있다. 춤은 마니पुर리

족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춤은 신들에게 하는 방법이며 우주적으로 필수요소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방글라데시는 긴급한 필요가 많은 나라다. 인구의 반 이상이 문맹이고 보건상태가 부적절하며 자주 있는 자연재해가 이 나라를 황폐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질적 필요들보다도 더 심한 것은 많은 영적인 필요들이다. 마니पुर리족들은 힌두교, 정령숭배와 미신의 결합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다소 힌두교에 불만족스러워 하지만 마니पुर리족은 복음에 대해서도 저항적이다. 메이테이어로 신앙이 번역됐지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방송은 아직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올랜도 총격범, 10년전 대학캠퍼스에서 총기난사 위협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이 10년 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 난사 위협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디언 리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정 아카데미(Correction Academy)를 함께 수강했던 동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당시 플로리다 교정교수 수습직원으로 마틴 교도소에서 일하던 마틴은 경찰관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이 과정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작된 지 몇 개월 뒤에 마틴은 총기 사건에 휘말렸다고 당시 동료들은 회상했다.



클린턴 쿠스타르는 "수업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마틴이 주차장의 차에 앉아 있었고, 수사 요원들이 그의 차를 에워싼 뒤 그를 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날 늦게 교우 교직원으로부터 마틴이 캠퍼스에 총을 가지고 오겠다고 위협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역시 동료였던 트레버 브레이든은 "마틴이 차에 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다른 동료한테서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동료는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마틴이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해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를 언급한 뒤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마틴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동료는 전했다. 마틴은 이 일이 있었던 직후에 수습 교도관을 그만둔 것으로 돼 있다. 플로리다 교정교수는 마틴이 교도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확인해줬지만, 마틴이 수습 교도관으로 했던 일이나 교도소 근무를 그만두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수습 교도관을 그만둔 이후 마틴은 민간 보안 회사인 'G4S 시큐어 솔루션스'와 세인트 루시 법원 등에서 2013년까지 근무했다. 세인트 루시 법원을 그만둔 것은 선동적인 말을 한 것이 이유였다고 세인트 루시 카운티 보안관은 밝혔다.

마틴의 문제적인 행동은 어릴 적 학교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고 일간지 USA 투데이가 소개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1992-1999년 마틴의 초등학교·중학교 시절 학생기록부 자료를 보면, 마틴은 영어 구사에 애를 먹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이었다. 마틴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으로 뉴욕 주 웨스트 베리에 살다가 1991년 플로리다 주 포트세인트루시로 이주했다. 마틴은 중학교 초기 시절까지 동급생을 때리고 교사에게 불손하게 굴어 31차례나 학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의 절반 이상은 5학년 무렵인 1996-1997년에 나왔다.

매리포사 초등학교에 다니던 3학년 때 그는 이미 '욕하고 무례하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으로 평가받았다. 종종 폭력적이고 음란한 말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이름인 '매리포사' 대신 '마리화나(대마초)'로 개사해 교가를 부르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대들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동급생 폭행도 멈추지 않아 4학년이던 1995년엔 교사, 심리학자, 전문상담가, 학부모로 이뤄진 '학생연구팀'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다. 마틴의 중학교 시절 교사는 그가 단순히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족에서 오는 언어간섭현상으로 인식 처하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마틴은 게이 나이트클럽 범행을 하기 5~6주 전에 플로리다주 잰슨 비치에 있는 한 총기판매가에 들러 방탄복과 대규모 싯탄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게에 있는 동안 마틴은 종종 언어로 누군가와 전

20일 '세계 난민의 날' ...시리아난민 국경 넘다 11명 집단 피살

화 통화를 했으며,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직원들이 지켜봤다. 이 가게의 직원은 "그는 일반인이 묻는 일반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기판매가게는 방탄복은 보유하지 않은데다가 대규모 싯탄 판매를 거절해 마틴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다. 마틴은 이후 다른 가게에서 권총과 소총을 샀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에 기반을 둔 범죄이며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수사 당국은 각종 물품과 서비스의 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올랜도 스타일'의 학살을 샌디에이고에서 재현하겠다는 협박이 유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폭스 방송 등이 전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 ...시리아난민 국경 넘다 11명 집단 피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에도 난민의 비극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시리아를 떠나 터키 국경을 넘어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군에 사살됐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터키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북부 지스르 알수구르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국경을 넘어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려서만 시리아 난민 최소 60명이 터키 국경을 넘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시리아와 900여km나 되는 국경을 맞댄 터키는 그동안 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탈출 경로였다. 그러나 울 들어 국경을 넘는 난민이 잇따라 사살되는 등 통제가 부쩍 강화됐다. 이는 지난 3월 터키가 유럽연합(EU)과 난민송환협정을 맺은 후 심해졌다고 NYT는 설명했다.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넘어가는 난민이 많아지자 EU는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전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대신 EU가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경 비자면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이 늘면서 터키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됐다. 가족이나 터키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폭탄테러가 4차례나 발생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터키에 사는 시리아 난민은 약 270만명이다. 대부분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으로 취급돼 법적 보호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은 653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 콩고에 성경 7000여부 기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불어 성경 5324부, 키투바어 성경 1712부 등 총 7036부를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보내는 '성경기증예식'을 가졌다. 이 성경은 캐나다 크리스찬월드와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교문감리교회 등이 후원했다. 기증예식에는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 최대원 교문감리교회 원로목사와 장현일(캐나다스코필드)장로 한국이사장, 생명나무교회(목사), 장세현(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성경은 이날 말 부산회에서 선편으로 운반돼 오는 9월 콩고 마타디(Matadi)에 도착할 예정이다. 장현일 목사는 기도에서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아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불어 성경 5324부, 키투바어 성경 1712부 등 총 7036부를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보내는 '성경기증예식'을 가졌다. 이 성경은 캐나다 크리스찬월드와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교문감리교회 등이 후원했다. 기증예식에는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 최대원 교문감리교회 원로목사와 장현일(캐나다스코필드)장로 한국이사장, 생명나무교회(목사), 장세현(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성경은 이날 말 부산회에서 선편으로 운반돼 오는 9월 콩고 마타디(Matadi)에 도착할 예정이다. 장현일 목사는 기도에서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아

온 콩고가 이번 성경보내기 사업을 통해 말씀으로 회복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캐나다 '적극적 안락사법' 통과...한국교회 대처 촉구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캐나다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한국 내에서도 2018년부터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 크리스천 의료인 및 법조인 등은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는 지난 17일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독극물 등을 이용해 생명을 끊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도 포함된다. 정신질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과 증인 두 명의 동의를 얻으면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에선 '연명의료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박상은 안양 생명원 원장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권리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그 자체를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의 존속 여부는 절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요즘, 죽음이 체 이르기 전에 삶을 마감하게 해서 안 되며 당사자가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권오영 변호사는 안락사 범죄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상속문제 등이 발생할 때 안락사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잘못된 경제논리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울증 환자가 감정을 주체 못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범죄화에 앞서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생명유지를 돕는 것이 직업인 의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은 절대적 가치였지만 최근 안락사에 대한 요구로 그의 미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을 고려할 때 '죽음을 앞당기려는 적극적 행위'인 안락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성경적 대안으로 말기환자가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통증 없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호스피스 시설과 관련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하원위원회 통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의 수위를 높여려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 의결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레바논의 이슬람 장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자지지구에 있는 조지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법안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리즘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된 테러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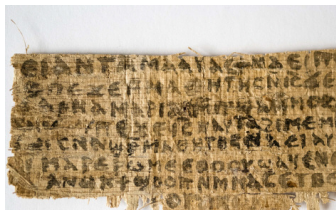
국무부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임기 종료를 몇 달 앞두고 북미간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합의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뺐다. 하지만 핵 사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지난 1월 제4차 핵 실험을 계기로 발동된 미국의 조치 때문에 이미 한계에 가까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의 주된 통상 파트너인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지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압박해 핵무기 포기협상에 나오도록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과업을 완수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난달 지정, 미국 금융체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금난을 겪도록 제재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예수 아내' 주장했던 캐런 킹 하버드대교수, 주장철회

예수에게 아내가 있던 것처럼 기록된 2세기 후반의 파피루스 조각(사진)을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킨 캐런 킹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피루스 조각이 위조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파피루스 조각은 2012년 9월 킹 교수가 학계에 제시한 것으로 3.8cm×7.6cm 크기에 콧머리 앞면에 8줄, 뒷면에 6줄 적혀 있다. 이 중 마리아라는 이름이 언급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주장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후손을 남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덴 브라운의 2003년 소설 '다빈치코드'와 맞먹는 화제가 됐다.



킹 교수는 당시 "원래 2세기에 쓰인 그리스어 원본 문서를 4세기 때 콧머리로 번역한 파피루스 조각으로 보인다"며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탄소연대측정에서 이 파피루스에 쓰인 잉크 성분이 기원전 404-209년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킹 교수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그러나 킹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피루스가 현대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킹 교수의 입장변화는 최근 미국 애틀랜틱매거진이 파피루스 조각 소유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틀랜틱매거진은 플로리다의 기업인인 월터 프리츠가 파피루스 조각을 입수해 킹 교수에게 진본임을 주장하며 건네준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발행되는 성서학 권위지인 '신약학(NTS)'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NTS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논문에서 2012년 월터 프리츠가 킹 교수에게 '예수 아내의 복음서'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잉크와 필레로 작성된 다른 파피루스 문서 '요한복음 필사본' 조각을 썼는데,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피루스 자체는 기원후 8세기 중반의 것이지만 여기에 사용된 잉크는 고대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4. 문경호

문경호는 1876년경에 태어났다. 그가 배재학당에서 공부할 때인 1896년 8월 30일 독립신문에 '자주독립가'를 기고했고, 이듬해 9월 14일자 독립신문에는 그의 '성품가'가 실렸다. 그의 '자주독립가'는 자주 독립과 나라 사랑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독립된 기공식 열을 후인 1896년 11월 30일에 협성회가 충군애국과 동포계몽을 위하여 조직될 때 회장 양홍묵과 부회장 노병선 이외에 문경호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문경호 학생은 1895년에 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 정동교회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교회였다. 문경호는 1897년 엠넷 청년회가 창립될 때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서재필과 윤치호의 지도를 받았다. 이듬해 그는 본 교회 권사로 임명되었다.

1900년 서울 상동교회에서 W.B. 스크랜턴 선교사가 신학반을 시작할 때 문경호는 김기범, 김창식, 최병헌 등과 함께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신학개론, 교리, 교회사가, 설교학, 해석학, 윤리학

등을 학습했다. W.C. 스웨러 선교사의 한인 전도사가 된 그는 1902년 8월 이천중앙교회를 설립했고, 이듬해 신학반을 졸업하면서 정동교회 전도사로 부임한다.

신학월보에 송도의 영적 각성을 기고한 자가 문경호였다. 아침에는 전도하고 저녁 일곱 시부터 기도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였는데 하루는 온 교인이 눈물로 죄를 자복했고 하루는 한 형제가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였고, 하루는 울면서 기도하였고, 또 하루는 울면서 간증하였는데 온 교인이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먹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들은 용서와 사랑의 기쁨으로 짝을 지어 사랑으로 전도하였는데 찬미소리와 전도소리가 이어져 천국이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리교회 권사였던 문경호는 1903년 본 교회 조지 H. 존스 선교사의 추천으로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했다. 한인으로는 그 외에 김명준과 정동명이 있었고, 선교사로는 윌리엄 D. 레이놀즈 목사, H.G. 언더우드 목사 그리고 제임스 S. 게이 목사가 있었다.

하와이

미국 북감리교 선교위원회가 1903년 11월 하와이 한인이주자를 겨냥한 선교를 가결한 지 4개월이 되던 1904년 3월 14일에 미국 유학을 꿈꾸던 문경호는 이화학당 졸업생인 부인 그레이스 문과 3살 된 딸 선재와 함께 하와이

에 도착했다.

그는 그 달에 현 순 등과 함께 하와이 평신도 선교사가 된다. 존 W. 와드만 목사가 치하한 대로 문경호는 1905년 1월, 지난 10개월 동안 394명을 전도했고, 지난 2개월 동안 3개 처의 교회를 조직했다. 이 중 한 지역의 사탕수수밭 관리인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750불을 헌금하였고 그의 직원들은 한국인 사역자의 교통비 등을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문경호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아닐 수 없다.

문경호의 카와이 선교여행은 훌륭했다. 12개 처의 394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존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문경호가 회

문경호는 조선으로 귀국하였다가 1905년 8월 14일에 상항에 도착한다. 친목회 회원 중 기독교인들이 방화중을 중심으로 기도회로 모이다가 1905년 10월 8일에 한인전도회를 조직한다. 문경호는 본 전도회의 전도사가 되어 예배를 인도하였다. 1905년 현재 상항 3번 스트리트 560번지에 한인들의 합숙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고, '엘리스 스트리트'의 한 개인 집 등 개인 숙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

가졌다.

1906년 4월 18일 상항에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때 한인들의 삶이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교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시 예배당 임대비가 30원



카와이 교회 (1930년대)

인 이주자가 1905년에는 400명, 1906년에는 450명이었고 대부분이 상항에 정착했음을 감안할 때 상항 미션의 역할은 긍정적이었다.

상항 친목회가 1905년 4월 5일에 공립협회로 변신하면서 동족 상애, 환란 상부, 함일운동을 위한 공립회관 건립식이 그 해 11월 14일 오후에 있었다. 상항 퍼시픽 스트리트의 삼층 건물 회관에서 있었던 건립식에서 문경호가 축가를 불렀다.

1905년 12월 문경호는 상항 미션 내에 야학교를 개교했다. 남자 교사 3인과 여자 교사 2인이 성심성의껏 가르쳐 공립신보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야학교의

전도사역 외 애국에도 한 몫...1905년 12월 상항 미션 내 야학교 개교 결혼 후 하와이 도착, 상항, 새크라멘토, 바카빌까지 목회 공간 확대



왼쪽 서 있는 사람이 문경호

교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여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턱까지 흘러내리는 가운데 63명이 회개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한 젊은 부인이 일어나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 날 77명의 남자가 일어나 '죄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며 울먹였다. 와드만 목사가 예바 사탕수수밭에서 성찬식을 집례하였는데 약 200명의 남녀가 참여했다.

하와이에 한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조선 정부가 하와이 주재 일본 영사를 하와이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이 예상되자 신민회가 이를 반대할 때 문경호가 앞장 서는 등 복음사역 외에도 조국 사랑에 앞장섰다.

상항 사역

리교회는 H. B. 존스 목사를 앞세워 한인을 위한 미션 홈을 설치하고 한인 선교를 시작했다. 미션 홈은 상항 페이지 스트리트 521번지에 위치했는데 13개의 침대를 포함하여 간단한 가구가 있었고, 예배를 위한 두 개의 거실도 있었다. 한인 전도사는 안 모와 박 모 그리고 문경호였다.

존스 목사가 1905년 9월 미국 북감리교 태평양 지역 선교연회에서 보고한 18명의 세례교인, 22명의 학습교인 그리고 15명의 원일교인 등 총 55명은 문경호가 섬긴 한인 교인으로 보면 된다. 이 중 17명은 상항에, 23명은 바카빌에, 15명은 새크라멘토에 있었던 것을 보면 문경호의 목회 공간은 상항을 벗어나 새크라멘토와 바카빌까지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미션이 문을 연 후 첫 번째 맞는 1905년 성탄절에 한인들이 모여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수 성탄을 축하하고 노래, 단소 연주, 놀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이었는데 존스 목사가 15원을 보조하였지만 그 절반인 7.5원은 한인들의 헌금에서 충당했다. 문경호가 교회 유지를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헌금하여 예배당을 계속 임대할 수 있었다. 미션을 설치한 후 1906년까지 21명이 세례를 받았고 남자를 제외하고서도 약 50여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문경호의 섬김에서다.



상항감리교회 (1907-1915)

사회 활동

13개의 침대와 식당과 간단한 가구를 구비한 상항 미션은 1905년 7월부터 한인 이주 동포의 임시 거처였고, 고학성의 쉼터였으며, 한인 노동자의 직업 소개소였고, 한인들의 결혼식장이었다. 한

심심 강익의 영어였고, 심심 감리교회의 엠위스회가 야학을 도왔다. 공립협회 상항지부회 학생회가 1906년 2월 초 특별찬성원 3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을 때 총회는 동석기, 임치정과 함께



문경호 (1904)

문경호를 선임했다. 존스 선교사의 1906년 9월 연회 보고에 따르면 문경호는 몇 달간 머물렀으나 불행하게도 절망 가운데 떠나갔다. 1906년 7월에 방화중이 상항 미션의 2대 교역자로 선임되면서 문경호를 통한 하나님의 한인 사역은 그 맥을 이었다. 2년 후인 1908년 5월 23일에 한국 부인회가 상항 미스 레이 부인의 출에서 도덕 이행과 국민 자각 확충 등을 목적으로 조직될 때 활기찬 문경호 부인 그레이스 문의 이름을 듣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 문경호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서 그의 소천 소식도 알 수가 없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8)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곳이 없다

갈보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곳이기 때문이다. 다 음은 고난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이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있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험한 십자

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것네

이 찬송에는 골고다 언덕은 나

오지 않는다. 대신 갈보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간 곳이 갈보리인가, 아니면 골고다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둘 다 같은 곳인가? 그렇다면 왜 이름이 다른 것일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으로 골고다만 언급하고 있지(마27:33, 막15:22), 갈보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갈보리로 알고 있는 것일까? 갈보리라는 지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된 것일까? 갈보리 찬송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땅에 수많은 '갈보리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골고다와 갈보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골고다는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다. 해골이 즐비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해골을 그렇게 방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곳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갈보리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나온다.

"And when they were co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Calvary,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malefactors"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눅23:33).

갈보리와 해골,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헬라어 원문에는 "해골이

라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갈보리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헬라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볼 때 성서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온다(마27:33, 막15:22, 눅23:33). 해골을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KJV)을 번역하면서 라틴어 성경도 참조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오는 라틴어 갈보리를 영어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영어로도 갈보리라고 옮겼다(마27:33과 막15:22에 나오는 갈보리는 해골로 옮겼다). 왜 KJV에서는 라틴어 '갈보리'를 영어 The Skull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라틴어(Calvary)로 옮겼는지 모르겠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멜벌교회 담임목사: 배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410)481-4243, Fax: (410)481-4823 310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617)452-4378, Fax: (617)452-4487 2 Main St, Woburn, MA 01742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04)977-4842, (704)977-4892 701 Doolittle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전 10: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06)427-0861, Fax: (206)427-1746 4044 N.E. 129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장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02)749-8828, Fax: (702)779-8879 7828 Desert Verde Dr., NV NV 89126 www.gccchurch.org	알킨사 재지들교회 담임목사: 최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월-토) Tel: (201)929-8648, Fax: (201)929-8179 800 Ash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kcc.com	앵커리지델타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Tel: (803)544-6444, Fax: (803)544-3182 5200 Ashwood Rd, Anch, AR 70019
엘파소델타문교회 담임목사: 허재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957)570-6400, Fax: (957)670-4306 5470 Allen Ave, El Paso, TX 79904	영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우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610)642-0288, Fax: (610)642-6077 701 Walnut Rd, Horsham, PA 19044	립턴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54)434-0700, (254)434-4830 1099 E. Waterway Memorial Blvd., Abilene, TX 79601	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월-토)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14)947-4447, Fax: (714)947-4448 4813 Mariposa St, Anaheim, CA 92803	주여수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03)498-7000, Fax: (703)498-7000 15291 Robinwood Rd, Richmond, VA 23236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월-토) Tel: (206)829-6676, Fax: (206)829-6240 8420 E. Yukon Ave., Tacoma, WA 98404 www.kccom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267-0429, Fax: (215)267-0429 2590 N.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9 www.kccpa.com

성경도 신앙(9)

청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안목(하)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성령의 설교가 되도록 준비함
퍼킨스는 암기에 의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암기에 의한 웅변 설교는 비영적으로 육체의 가장 부패한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설교 원고를 암기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그것은 큰 노력을 요구하며, 둘째, 설교 중 실수를 하게 될 경우 혼란이 빠질 수 있으며, 셋째,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발성, 행동 그리고 감정의 거룩한 흐름이 방해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설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내용에서 인간의 지혜는 숨고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증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 기술이 아님을 역설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첫째, 결코 무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교양과목이나 철학을 공부해야 하며 설교를 위해 많은 독서가 요구되지만, 회중 앞에서는 결코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되며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의 모습은 퍼킨스에게는 상상할 수 없다. 모든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의 목소리는 높아야 할 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는 당시의 청교도들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목소리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교리를 위해서는 보다 부드럽게, 권면을 위해서는 뜨겁고 힘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은혜로운 몸의 제스처를 써야 하며, 손, 팔, 눈을 사용하여 감사, 슬픔, 확신 등 회중의 경건한 감정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존경 받는 설교자를 모범으로 가져와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한다. 목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처음부터 우리의 안목을 영예에 돌 것이 아니라 소명을 잃어버릴 위험성에 두라"고 요구한다.

설교자의 설교 전후의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경외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퍼킨스는 목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난다. 첫째, 불신자로서 성경도 모를 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설교자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끝내 거부할 때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둘째, 가르칠 수 있지만 신앙에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교리문답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셋째, 유식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죄의 완악을 깨뜨려 회개로 이끌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슬픔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겸손한 사람들인데, 겸손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복음과 함께 율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첫째 침의, 성화 그리고 견인의 복음, 둘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새로운 순종을 가져오는 저주가 없는 율법, 셋째 의인으로서 죄 인임을 인식시키며, 늘 율법의 목상, 죄의 느낌으로 시작하되 복음 안에서 끝을 맺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믿음에 있어서 시험에 든 자들에게는 형제애로 그들의 실족과 상처를 분석해서 신뢰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퍼킨스의 설교이해: 하나님의 증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회중 앞에서 고백 설교자 경건과 회중 눈높이 맞춘 설교 강조...제사장적 목사 이해와 천사론 특색

둘째, 설교자는 학문을 절대적으로 감추어주어야 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강단에서 드러나야 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사역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설교자 안에서 그리고 그 곁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 물론 성령의 나타나심은 설교자의 말과 제스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설교언어는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우야 한다.

셋째로 설교자의 말은 회중이 이해하기 쉽고, 성령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로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 넷째로 설교자가 원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회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설교자는 세속적인 언사나 격에 맞지 않는 말을 금해야 한다. 설교자의 마음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언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청하는데, 성도들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목사의 거룩한 설교보다는 그들의 세속적인 행동을 먼저 따르기 때문이며, 목회의 열매가 없는 우선적인 이유는 목사가 성화되지 않은 채로 사역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퍼킨스는 신성하고 목보적인 기술로서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성경본문을 또렷하게 읽는다. 둘째, 낭독된 그 성경 본문 자체로부터 느낀 바와 이해한 바를 제시한다. 셋째,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몇 가지 교리와 유익을 모은다. 넷째, 그 본문으로부터 옮겨 얻은 몇 가지 교리를 삶과 율리에 단순하고 평범한 언어로 적용한다. 곧 이 모든 것을 더 요약하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설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청교도들의 독특한 입장- 설교자를 보호하는 천사

퍼킨스의 설교이해에는 독특함이 제시되는데, 구약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적인 목사 이해와 천사론이다. 이는 퍼킨스가 소속된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하겠다. 물론 가톨릭적사제론과는 차별을 보이면서도 퍼킨스는 중보자로서의 목사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목사를 보는 천사에 대한 입장은 개혁신학에서 볼 때 약간 낯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제시되는 천사는 설교자에게 위로가 되는 주장이다.

퍼킨스는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를 "간교한 술책이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옥죄는 고문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죄 때문에 빈번히 목사를 찾아와서 "경건한 도움과 거룩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고백"은 인정한다. 목사가 자기 양떼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는 백성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부패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청교도 설교자의 경건함
하나님은 설교자의 경건한 생활에서 나오는 경건한 말을 기뻐하시는데, 목사가 특별히 지녀야 할 것은, 첫째, 선한 양심, 둘째, 내적 감각, 곧 불타는 거룩한 감성, 셋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 넷째, 인간에 대한 사랑, 다섯째, 덕망, 여섯째, 온화함이다. 더하여 퍼킨스는 목소리와 몸을 쓰는 설교자의 제스처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서서 전달하는 그런 설교

4. 청교도의 회중에 대한 이해
설교자는 말씀이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곧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며 적용함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퍼킨스가 대학교수로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목회현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는 점은 그가 생각하는 신학이 사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퍼킨스는 일곱 가지로 청중을 다음과 같이 나

다. 일곱째,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하는 일반적 경우에는 율법을 통한 죄의 회개를 촉구하여 복음의 음성을 아울러 듣게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younsklee@hot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

걸어 다니면서도 온 세상의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손안에서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하나로 지식의 바다에 접속할 수 있는 오늘 날, 가장 큰 한계는 지식의 저편에 공존하는 지혜의 부족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와 젤리나이트를 발명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품을 전쟁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라듐을 찾아낸 퀴리부인은 폴란드가 낳은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며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였지만 과도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악성 빈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과 발전, 경험 등이 축적되어 형성된 지식은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고 지식 그 자체도 불완전하여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의 성품이 긴요한 것이지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움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야 이해를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양은 적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교육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가장 상위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실현'을 목표로 달리고 있지만 그 노력이 자칫 지식만 쌓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허무하고 우울한 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성품을 소유한 행복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는 것을 즐겨워해야 합니다. 지혜는 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청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귀 기울인다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만 있어도 지혜가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관찰하여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지혜를 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막힌 답을 허물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힘이 바로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그 결과 세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목표도 즐겁게 배운 그 지식을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을 키우는데 맞춰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45 새벽기도: 오후 5:30 성경공부: 화, 목, 일 오전 10:00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월-금) 새벽기도: 오후 11:00	뉴욕새벽법정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 (월-목) 금요일기도: 오후 8:00	뉴욕새사임교회 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5:30 금요일기도: 오전 10:3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윤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30 금요일기도: 오전 8:00	뉴욕순복음안대교회 담임목사: 이한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30(월-목) 새벽기도: 오전 6:30(월-목)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목)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1:30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철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에덴애선교회 담임목사: 최광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목)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00	에사망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2:15 새벽기도: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 금요일기도: 오전 8:0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후 1: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천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10) 695-0908 Fax: (310) 695-0908 N.Y.: Tel. (718) 888-4000 Fax: (718) 888-0074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경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침례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최영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11:30 7월 1일(주일) 11:00-12:00 일, 화, 목, 금요일 예배: 오전 9:30(주일) 금요일기도: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권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30 금요일기도: 오후 7: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원본 목사 파라과이선교회의 행정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하와이 앵무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목)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7:00

릴레이 금식 철야 기도...하나님이 하셨다!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종료 감사예배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종료 감사예배가 21일 오전 10시 4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호우 목사(OC교회 수석부회장) 사 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윤우경 회장(OC평신도 연합회)이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대표회장)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종료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기홍 목사는 "준비위원장, 총무단 모임을 계속 가져왔고 은혜가운데 잘 마쳤다.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마음을 같이했던 동역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KWMC대회에 대한 남가주교계 인식 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하는 고민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래서 작정한 것이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 철야기도 등을 실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대회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참석했다. 그리고 50여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것은 축복이고 열매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기도를 응답해주셨다. 선교의 불이 미주 디아스포라교회들은 물론 한국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세계선교 마무리가 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대회의 감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송영일 목사(남가주

목사회 부회장)가 통성기도를 인도했으며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김기동 목사(공동준비위원장) 사 회로 열린 선교대회를 위한 감사와 소감의 시간을 가졌다.

박기호 교수(풀리신학교)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희생적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열악한 조건가운데서도 좋은 대회 되도록 수고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용하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쉬운 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용하셨다. KWMC가 계속

대회를 열어 선교단체, 교회들이 선교흐름을 읽고 선교운동이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훈련을 위한 선교연장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영 선교사(태국선교사, 스텝)는 "선교대회에 처음 참석해 많은 걸 보고 배웠다. 아쉬운 것은 MK들이 수고 많이 했는데 기억해주시지 못한 것이다. 보이지 않은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대부분 은혜한인교회였다. 그런 분들 때문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하며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된다는 것이다. 선교는 기도다. 기도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선교는 시스템이 될 수 없다. 우리기도에 세계선교 마무리가 달려 있다. 2020년 향해 뛰어가는데 같이 기도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구 선교사(본부코디네이터)는 "남가주 목사 성도들 가운데 '선교'라는 주제가 협동적으로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 선교의 영이 있음을 발견했다. 선교를 통해 남가주 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열기가 남가주교회들의 부흥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총결산은 11월에 있을 KWMC 총회에서 발표된다.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기도가 사람을 변화 시킨다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 삼승적으로 돈을 훔치는 탕아가 있었다. 19세가 되었어도 계속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좋아하며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나중에 훔치는 손바릇 때문에 감옥소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탕아가 변화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바로 조지 몰러(George Muller, 1805-1898)이다. 몰러는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은 기도의 산 증인이다.

몰러는 회심이후 할레대학을 졸업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6개국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약 3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특별히 그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폈다. 시편 68:5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였다. 몇 명의 고아로 시작한 것이 2천 명 이상 이르게 되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어 세계의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있다.

몰러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된 연유가 있다. 어느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명 받은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고도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가 탕가 몰러를 성자 몰러로 변화시킨 것이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기도는 자신을 고치고, 환경도 바꾸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bible66@gmail.com



APU한인동문회 주최 여름신학강좌에서 박찬석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APU 한인동문회 주최 여름신학강좌 첫 강의 "21세기 요한복음 연구"...강사에 박찬석 박사

아주사피서픽대학교(APU)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 주최 여름신학강좌 첫 번째 강의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PU LA센터 강의실에서 박찬석 박사(

오하이오 소재 우스터대학교 종교학과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박성민 APU 부총장의 강사소개로 시작된 세미나는 21세기 요한복

음 연구로 열렸는데 △요한복음 개관-요한복음의 특성 △요한공동체 다시보기 △요한율리 △성전(Temple)을 중심으로 본 요한복음의 시간이해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강의가 이루어졌다.

박찬석 박사는 "요한복음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라고 설명하며, "초기기독교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발견되는 요한복음의 특성은 2천년 교회역사 내내 논의돼왔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요한공동체 가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편지의 흔적을 사용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역사적 증거의 부재와 요한복음 자체적으로도 특정 공동체를 위해 혹은 특정 공동체와 연관돼 기록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요한율리 부분에서는 "요한복음은 윤리적 주제에 관심이 없으며 요한율리는 배타적이고 분파적이고 분리적"이라며, "요한복음이 말하는 율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개개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믿는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의 본과 가르침과 새 계명에 따라서 가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행동을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PU한인동문회 주최 여름신학강좌 두 번째 강의는 7월 18일(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잠언을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본교 구약학 교수인 존 하틀리 박사가 맡는다. 수강료는 30달러. 자세한 문의는 최장식 목사(818-331-5478), 김사라 전도사(310-988-0099)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협 주최 마라나타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교회협 주관 '마라나타 수련회' 강사 임은빈 목사, 특강 6회 인도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권권 목사)가 주관한 마라나타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임은빈 목사(한국동부제일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부웅 목사(신학분과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조미나 목사가 특별 찬양했고, 안기정 목사(총신동문회 총무)가 성경봉독

을, 그리고 강권권 목사가 '바움하제'(출19: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정해진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은빈 목사가 6차례의 특강을 인도했으며 2차례의 새벽기도 그리고 폐회예배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 계속)

내가 아는 성경 중에(물론 라틴어 성경을 제외하고) KJV에서만 같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같보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같보리는 보통 명사, 지명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지명처럼 사용되고 있다. 영어 성경 KJV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성경 지명 가운데 골고다는 있어도 같보리는 없다. 이스라엘에는 골고다는 있어도 같보리라는 곳은 없다.

여담 하나, 교회 이름 가운데 같보리교회는 많다. 그러나 골고다교회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미국교회에는 있다). 골고다는 어찌지 음산한 분위기가 풍

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일까? 성경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같보리교회는 골고다교회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교회도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같보리도 뜻을 알면 섬뜩할 것이다. "해골이 뒹구는 곳" 아닌가?

jinhlee1004@yahoo.com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물펜



주보/함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신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샘플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한국서적
BOOKS KOREAN, INC
TEL: 718-762-12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8년 달력제작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됩니다.

이메일 상담도 가능
bookskorea@gmail.com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장학생 모집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현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12학년 제외)으로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은 평균 3.25이상인 학생. 구비서류는 장학금신청서(교협양식, www.ny-ckcg.org),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사진(1.5X1.5).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대한다. 마감일은 7월 1일(금). 장학금액은 일인당 500달러.

▲문의: (718)279-1414

뉴욕수정성결교회 “제7회 미션 콘서트”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오는 26일(주) 오후 6시 “제7회 미션 콘서트”를 갖는다. KM(한어권), EM(영어권), CM(중어권), 청년, Youth 모두가 함께 하는 미션 콘서트로, 동 교회는 매년 선교 바자회와 미션 콘서트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선교하고 있다. 올해도 70여 명이 단기선교를 가게 된다.

▲문의: (646)942-2078

유스그룹 전도사 청빙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유스 그룹을 지도할 전도사를 청빙한다. 현재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으로 복음전도와 2세 등 청소년교육에 관심 있는 자. 이력서를 이메일(kwanhochung@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917)750-8174

프라미스교회 장경동 목사 초청부흥회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뉴욕과 뉴저지 성전에서 장경동 목사 초청 부흥회를 갖는다. 일시는 △뉴욕: 7월 1일(금) 오후 8시, 2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8시, 3일(주) 오전 8시15분, 10시 40분 △뉴저지: 7월 3일(주) 오후 4시, 4일(월) 새벽 5시20분, 저녁 8시, 5일(화) 새벽 5시20분, 저녁 8시이며 저녁집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집회가 따로 마련된다. 집회 주제는 “선, 회복, 비상”.

▲문의: (718)321-7800, (201)461-2600



NJUCA 고교 제11회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다.

NJUCA 고교 제11회 졸업식...11명 졸업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New Jersey United Christian Academy, 이사장 신정하 박사, 교장 Tim Castello) 제 11회 졸업식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저녁 6시 중부 뉴저지 크립리지에 위치한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는 총 11명이 졸업했다.

팀 카스텔로 교장의 사회로 사라 우 카일리 코인토티 베로니카 파스쿠알의 미국가 중창, 신정하 재단이사장의 개회선언, 키스피커인 컬럼버스침례교회 존 그로브 목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그로브 목사는 야곱의 일생을 예로 들어 야곱이 어디에 있던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

하며,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졸업생을 격려하며 축복했다.

이어서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상과 졸업생의 고별사가 있었고, 학교의 전통인 졸업생 한명 한명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졸업식은 졸업장 수여와 졸업생에 대한 축복 기도로 종료됐다.

올해 개교 12주년을 맞은 크리스천 사립 중고등학교 NJUCA는 기독교 영성을 중심의 기독교 리더양성을 목표로 미주에서 최초로 한인에 의해 설립된 정규사립중고등학교로, 소수 정에 교육에 진력해 영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고루 갖춘 미래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예수로 문제해결 받고 응답받는 대회로!

뉴욕교협 제4차 할렐루야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지난 20일 제 4차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교협은 이날 포스터를 배부하고 담임목사들이 교회에서 계속 광고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오전 10시30분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열린 준비기도회는 이지용 목사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 설교 신석환 목사, 특별통성기도, 광고 한준희 목사, 축도 김중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장 이종명 목사는 대회 끝까지 계속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하며 먼 거리임에도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지역



뉴욕교협 제4차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사막의 수증기가 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임원진과 실행위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원에 집중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환 목사는 “살아있는 돌”(벤전2:4-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지혜자는 상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죽고 멸망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인정해주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사랑을 회복하는 할렐루야대회가 되기를



효신장로교회 초청으로 뉴욕에 온 진도 칠전교회 비전트립 팀이 나이아가라폭포 앞에서 기념촬영 했다.

뉴욕효신장로교회, 진도 칠전교회 비전트립팀 초청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의 초청으로, 진도 칠전교회(담임 전정림 목사) 비전트립팀 20명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 맨해튼과 워싱턴DC,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방문하고 지난 14일 귀국했다.

비전트립팀을 인솔하고 뉴욕을 방문한 전정림 목사는 “한국의 남단 작은 섬에서 온 청소년 아이들(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 거대한 도시와 유서 깊은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

히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에 대해 효신장로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진행된 비전 트립을 통해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큰 포부와 꿈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인솔하고 온 진도 칠전교회 담임 전정림 목사는 한국에서 금주금연 국제학교를 설립해 금연/금주 캠페인, 클리닉과 상담 등의 사역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기사제공: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40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 40차 조찬기도회가 뉴욕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에서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열렸다.

예배는 우화선 장로 인도로, 여소용 장로의 기도 후 임용수 목사가 사편 83: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 기도시간에는 남부 남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와 연합회를 위하여, 유성중 장로가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장석면 장로가 △좋은씨앗교회를 축복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헌금 특송으로 이정복 장로의 바이올린 연주와 이영숙 권사의

찬양, 임형빈 장로의 찬양이 있었으며, 헌금기도는 김호상 장로가 맡았다.

또한 황규복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이어졌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뉴욕장로연합회가 매월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합해 함께하는 이 기도회에 많은 장로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호 장로의 식사기도 후 좋은씨앗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시간을 가졌으며, 6월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케익커팅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바란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또 “본문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택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로 문제해결 받고 응답받는 기적이 이번 할렐루야대회에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영환 목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이창종 목사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원팔연 목사를 위하여, 김기호 목사 △어린이 강사 우알렌 전도사와 청소년 간사를 위하여, 마바울 목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고방지, 대회후원을 위하여, 김주열 장로 △한인동포사회의 화합과 전도를 위하여, 김희복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마지막 5차 준비기도회는 7월 5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성결교회(장석진 원로목사)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는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7월 15일(금)부터 17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며 같은 시간 체육관에서 어린이복음화대회(강사 알렌 우)가 열린다. 청소년 복음화대회는 9월 9일(금)과 10일(토)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또 18일(월) 오전 9시부터 금강산 식당에서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된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가 주최한 은퇴/원로목사 초청오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목사회, 은퇴/원로목사 초청오찬 가져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양춘길 목사)가 6회기 마지막 행사의 일환으로 ‘은퇴 원로 목사초청 오찬모임’을 지난 13일 오전 11시 팔공교회(담임 유재도 목사)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 2부 오찬, 3부는 여흥으로 진행됐다.

부부 동반으로 약 30여 명의 뉴저지 거주 은퇴/원로 목사가 참석하신 가운데, 예배는 유재도 목사(목사회 부회장) 인도로 대표기도

이후에 목사(회계),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담임), 박근재 목사(총무)의 광고, 그리고 김용남 목사(뉴저지연합장로교회 은퇴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인터내셔널 부패에서 오찬을 나눈 후, 박근재 목사의 진행으로 재미있는 여흥과 선물 증정으로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뉴저지한인목사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40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총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8-4400, Fax.(718)888-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유료 광고 안내	종류(표지)	사이즈	가격
전면릴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800.00
		Back 면	\$3,0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릴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볼 넣어줌			
전면흑백 (칼라) 전면 1/2	15.5cm × 23.5cm		\$800.00
		전면 1/4	\$600.00
		7.7cm × 11.7cm	\$360.00
		전면 1/8	\$250.00
블록 Listing	Listing size	15.5 × 2.8cm	\$250.00
		7.7cm × 5.8cm	\$100.00

무료 리스팅 신청서	항목	필수사항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mission 선교의 창 (57)

2016년, Azusa 한인 선교대회를 돌아보며

송중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KWMC가 주관하는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막을 내렸다. 본 대회는 6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었다. KWMC 본부 측의 집계에 의하면 총 등록자는 선교사 1,200명을 포함 북미주 전역에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3,000여명이었다. 밤 집회는 매일 평균 4,000명이 참석하였다. 이밖에 EM,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물론 밤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교우들까지 합치면 최대 5,000명까지 어림잡을 수 있다.

선교 헌신이 희귀한 이때 이는 너무나 큰 수확이다. 넷째로 간접 참석자에 관한 것이다. CTS와 여러 언론사의 수고로 대회가 실시간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이로써 선교대회가 아주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외의 많은 이들에게 전달된 것은 고무적이다. 다섯째로 사건 사고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대회가 빛난다 해도 어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금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셨다.

면 첫째, 주제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기껏 5일간인데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면 딱히 남는 것이 없다. 백화점식 배열로는 식상하기 쉽다. 둘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적합한 인물을 강사로 세워야 한다. 대회는 강사의 수준만큼 올라간다. 세상에서 권세 있고 이름 있는 사람보다 정말 한인 선교의 맥을 짚으며 출몰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전체 구성을 여유 있게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순서는 정중들을 지치게 한다. 이를 위해 주제와 거리가 먼 발표들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 공연장이 아니다.

회에 와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지역교회와 매칭을 시켜 선교적으로 도전케 해야 한다. 교회에 선교적 활류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선교사 입장에서 본 발전적 제안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거나 재충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 매일 똑같은 지역에서 상대하는 현지인들과 씨름하다보면 탈진하기 쉽다. 본 선교대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다수의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참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 요인이다. 반면에 소수의 몇몇 부류들은 앞뒤로도 철세처럼 여기저기 잘도 찾아다닌다. 주최측과 개최지역 목회자 그리고 각 선교부가 연합적으로 대책을 논해 공통의 답을 찾아야 한다.

매머드 선교대회는 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요한다. 자칫하면 희생의 댓가에 비해 소득이 적을 수 있다. 큰 대회는 사역 종류별 작은 선교대회와 연계될 때 이상적이다.

금번 집회는 새벽기도회, 저녁 선교대회, 주제 강연, 전략포럼, 140개 선택강좌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70개 선교단체가 부스를 열고 많은 선물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회가 문안하게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 때문이다. 이제 2020년도를 바라본다. 다음 대회는 어떠한 것인가? 더 낫은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 금번 집회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쉬웠던 부분 인원 동원에 있어서 이번 대회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처음 언급되는 것은 개최장소의 문제이다. 아주사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외진 곳이다. 교통편도 좋지 않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이다. 6월 초순은 아직 학교들이 방학을 하지 않는 때였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 청소년들을 선교적으로 교육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성세대보다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준비시간이다. 한 달여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준비모임이 가동되었다. 홍보 시간이 너무 짧았다. 미 서부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었기에 인식도가 높지 못했다. 설사 알았다 해도 이미 여러 교회들은 6월 자체 행사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 장소와 시기가 남가주 특성에 맞게 고려되고 이른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많은 한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주최 측의 말 못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주최적 입장에서 본 발전적 제안 선교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

넷째, 참석 권고 대상을 목회자와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기보다 전략적 동원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선교적 교회는 출현할 수 없으며 또한 꿈나무들 가운데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외적 명분보다는 실리적이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적 입장에서 본 발전적 제안 주최자는 밥상을 차리는 위치이다. 밥상을 차리는 이유는 누군가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선교대회의 주인공은 참석자이다. 본 선교대회는 그야말로 선교올림픽이다. 올림픽은 주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스포츠 축제이다. 이렇듯 본 대회가 개최되는 곳에서는 목회자들이 앞장서 축제의 장으로 소화를 해야 한다. 귀하고 값비싼 축제가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무관심하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러므로 대회 개최지의 목회자들은 미리부터 본부측과 연계하여 선교축제가 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

이와 반대로 선교사에게 봉사적인 측면도 있다. 대회 기간 중 주일날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인즉, 교회에 도움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보다 이민교회를 도우려는 역 선교발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민교회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선교사역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맺음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매 4년마다 열리는 본 선교대회는 북미주뿐만 아니라 한인 세계선교의 큰 결실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구촌 복음화와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적 대잔치이다. 2016년 아주사 선교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 서양의 저명한 강사들과 5대양6대륙에서 온 선교사들과 그리고 고석희 KWMC사무총장과 준비대회장이었던 한기홍 목사를 비롯한 은혜한인교회의 전적인 수고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의 바람대로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가슴을 두들겼던 선교의 여운이 모든 참가자들의 생활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지려 한다. 다음 대회인 2020년을 바라보며. 아듀!

6.25상기 초대시

6월 장미



시인 박상희 | 프라미스교회 권사

창밖에 그 장미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의 활짝 피었던 장미
간밤 느닷없이 내린 천둥과 비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누군가 내 안에서
장미 하나로 피어 있다

빗발치는 포성의 먼 쇠내소리와
피 얼룩진 희미한 얼굴

3천리 강산 내 아가
년 아직 풀 수 없는 무슨 숙제인가
대서양 태평양 먼 바다 너머
두 개의 찢긴 지도가 누워있다

두 개의 태양이란 없다

답이 있는 가
6월의 장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누군가 내 안에서
장미 하나로 피어 있다

누군가 장미 하나로 울고 있다

kwksanghee9@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펴기

브라질

5월 브라질 지우마대통령 하야를 위한 상하원 투표 통과로 현재 부통령인 미셀 텔레메르가 남은 2년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8월 5일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어수선합니다.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전국적으로 데모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각국에서 참가한 수많은 동성애자(LGBT) 대회가 상파울로 가장 중심지에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순절계통 교회들은 더욱 상업적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성경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 친교모임

5월 26일 브라질은 꼬르보.크리스티(CORPO CRISTI) 공휴일이었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안디옥교회, 캄보, 림보교회, 엠부교회들이 수양관에 모여 하루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와 운동, 체력단련, 성경퀴즈 등 다양한 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오순절계통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고,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국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초청 가정예배

마리아, 마르틴스 성도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이웃들을 초청하여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브라질은 어릴 때 영세를 주므로 그 영세증

을 평생 간직하며, 영세증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도 우상을 버리고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반

어린이 교육이 장애 소망입니다. 파벨라(판자촌) 어린이들을 수년 교육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15세가 되면 연애를 하므로 교회를 대부분이 떠납니다. 그러나 부



모들과 함께 출석하는 어린이들은 교회의 장래의 일꾼들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라질은 장로교신교사가 1859년 8월12일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받은 에슬리, 사이몬톤이 도착합니다. 그는 찰스 핫지에게 수학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카톨릭 뿌리가 깊은 땅에서 장로교신교는 성장이 느립니다. 수많은 오순절 교단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5000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수 만명의 도시에도 장

모, 손자들에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브라질 선교의 소망은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교회들이 연합하여 건강하게 자라며 △청년들이 장로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루도록 △이 교회들을 목회할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며, 발굴하도록 △어린이전

모들과 함께 출석하는 어린이들은 교회의 장래의 일꾼들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로교가 없는 도시들이 매우 많습니다. 브라질 전통교단은 한 노회가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보통 10-20년 걸립니다.

도협회에서 훈련받는 교사들을 위해 △GMS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노시영 김향실 선교사
nohsyoung@hanmail.net

“2030년 중국, 세계 최대 기독교국가 된다” 2억4000만명... 퍼듀대 펑강 양 교수 주장

중국의 기독교인이 2030년 2억4000만명에 달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기독교 탄압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디애나 주 퍼듀대 펑강 양(54)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평균 10%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현재 기독교인은 2800만명이다. 정부가 공인한 삼자(三自)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다. 양 교수는 “여기에 공인받지 못한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합칠 경우 1억명(인구의 7%)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은 1949년 건국 당시 인구(약 5억4000만명)의 0.8%인 430만명 정도였다. 그러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며 80년 기준으로 600만명이 됐다. 90년대엔 농촌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 도시 중산층까지 기독교가 확산됐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 교회처럼 선교사 파송국이 될 것이며 전 세계 기독교의 지형을 변화시킬 만큼 그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이 더 가혹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사례로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저장성에서 1700여 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양 교수는 “저장성 정부가 교회 십자가를 강제로 떼냈으며 표면적인 이유는 건축법 위반이었다”며 “중국 정부는 교회가 공산당의 권위를 무너뜨리려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중국 인민이 교회를 찾는 이유로 복지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중국의 복지정책은 모든 것이 공짜인데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한 것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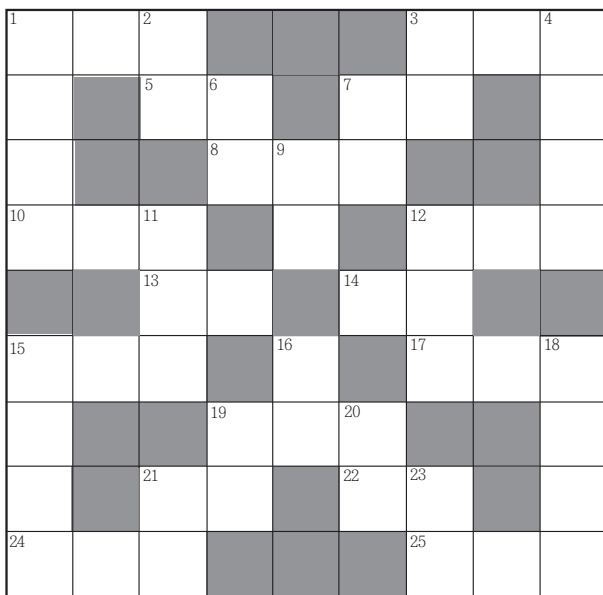
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하면서 생긴 정신적인 공백을 종교가 메워주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며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관계를 맺고자하는 열망이 대단하다. 교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로교 성도인 양 교수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종교를 연구하는 종교사회학자다. 2006년 ‘The red, black, gray markets of religion in China’(중국 종교시장의 세 가지 유형)라는 논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서구의 어느 종교사회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기독교사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과 간부들도 이 같은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십자말 • Cross Word (129)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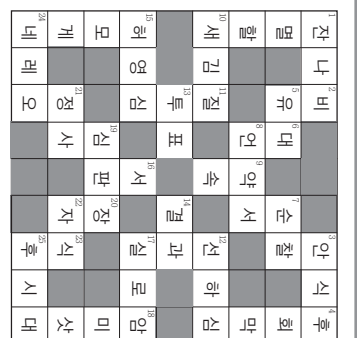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원숭이(창10:22).
2. 안식하고 난 뒤(눅24:1).
3.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12지파에게 토지분배를 할 때 유다지파에 준 땅 이름(출4:3).
4.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피(창41:45).
5.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약속의 말씀을 글로써 표시한 것(출24:7).
6. 소나 양이 먹은 것을 도로 입으로 내어서 다시 잘게 찢어 삼키는 것(레11:3).
7. 나의 평생에 ○○○과 인자하심이...(시23:6).
8. 선거 또는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하는 일(행26:10).
9.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결말의 상태(사32:17).
10. 간악한 마귀 날 꾀어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 또 추한 생각(찬433장).
11. 이곳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죽었다(눅13:4).
12. 하나님(시50:6).
13. 정치상의 일(골2:10).
14.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일컫음(시128:6).
15. 로마에 있는 신도이다(롬16:15).
16. 앞으로 오는 오랜 기간(골1:3).

<세로 푸는 열쇠>

1. 사울이 교회를 ○○○○...(행8:3).
2. 어떠한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어 설명하는 일. 예수님이 잘 이용하셨다(막4:13).
3. 자세히 살피어 조사함(왕하13:16).
4. 일이 잘못된 뒤에 아무리 뒤우려도 어찌 할 수가 없음. 가릇 유다처럼.
5. 남 대신으로 말함. 목사님이 잘하심(골3:7:4).
6. 정하여져 있는 차례(민2:17).
7. 장래의 일에 대하여 상대자와 서로 결정하여 둠(롬4:21).
8.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민25:11).
9. 설익은 과실(계6:13).
10. 소아시아인으로 바울을 쫓다가 바울이 갇히니 바울을 배반하였다(딤후1:15).
11. 글씨 쓸 때 종이 밑에 까는 널판(사8:1).
12. 아히에셀의 부친이다(민1:12).
13. 마음을 쓰는 분새, 좋지 않은 마음보(삿5:15).
14. 만아들(창13:15).
15. 오정 때(시37:6).
16. 식사를 마친 뒤(고전11:25).

십자말 정답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 아젠넷(뉴욕, 미국)
- 유엔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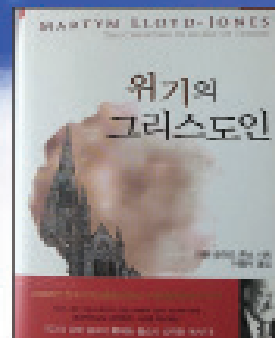
-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 크리스찬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 크리스찬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 추천 기독교서점협회 *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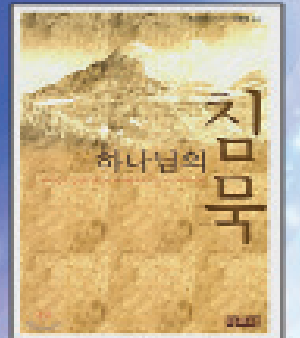
추천도서



복음 박영선, 김관성 저,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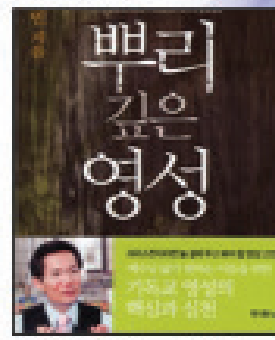
위기의 그리스도인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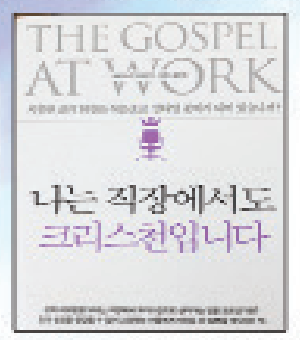
치마복 켈 가이더 저, 디모데



직실 박영선, 김관성 저, 두란노



뿌리 깊은 영성 강준민 저, 두란노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배서현 저, 지평서원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2)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36)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 신학적 기초들, 철학적 기초들, 역사적 기초, 사회학적 기초, 그리고 심리학적 기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이야기부터는 그 마지막 기초인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리큘럼의 계획 및 결정과 관련된 질문들은 "무엇을,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 누가/누구를 교육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예를 들면 그롬(Thomas Groome), 와이코프

은 절대 등과 같은 가치 및 태도,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의 실천 등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학적 개념들을 커리큘럼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개념들은 성경적 통찰을 수반하며, 그 통찰에 의한 기독교적 삶의 행동들을 추동함으로써, 교회 교육과 그 커리큘럼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에 더 깊고 명확한 개념들을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교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교육의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들을 질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장기적

이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방법들이 가르칠 내용과 합하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 주입의 방식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저명한 교육학자 가드너(H. Gardner)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Multiple Intelligences) 기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야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 기준 없이 다양성만을 추구해서도 안됩니다. 교육의 방법들은 그 가르치는 내용과 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해 가르치면서 억압적인 방식을 취해서는 안되고, 배려에 대해 가르치면서 경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언제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침에 가르칠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교회신학대학원 교수)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에 대한 6가지 질문과 답변 신앙성숙도에 따라 내용에 합한 다양한 방법 사용

(D. Campbell Wyckoff), 그리고 이 이야기 기반하고 있는 책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의 저자인 페즈미노(Robert Pazmino)와 같은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묻고 대답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학자들이 묻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는 어떤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날 일을 체계적으로 소통할 때 사용되는 기초적인 카테고리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육원칙과도 같습니다. 평범하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묻고 대답함으로써 우리 자체를 특히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교육 할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또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의들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는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내용이야말로 커리큘럼의 본체와 같은 것, 하나의 구조 틀 안을 채우는 실질적 볼륨(volume)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적 지식, 이해, 가치, 태도, 실천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창조, 출애굽, 혹은 예수님의 치유 등과 같은 성경 이야기, 구약, 죄, 혹은 삼위일체와 같은 성경적 교의, 사랑, 용서, 축

인 반면, 그 목표는 학습자의 상황 및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구체화된, 어찌 보면 특수하고 보다 단기적인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목표란 모름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 사역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목적이 지체 및 다음세대들의 진정한 회심(신앙 형성 및 영적 성숙)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목표는 그 회심을 일구어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상징된 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여, "어디에서 커리큘럼의 내용들을 가르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체들과 다음세대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 어떠한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즉 교실에서 가르칠 것인지 잔디밭에서 가르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라서 교회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 답에 따라서 커리큘럼의 계획 및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커리큘럼 계획과 결정을 위해 묻고 답해야 하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한 방법들

지 배에 가르칠지, 혹은 4월에 가르칠지 12월에 가르칠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침에, 인간의 죄성 및 회개의 필요성은 밤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4월에 예수님의 탄생은 12월에 가르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큘럼은 이렇듯 단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내용을 특정 수준에서 가르칠 것인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혹은 신앙 성숙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가르칠 최적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전후 배움의 내용을 파악하여 타이밍을 잘 잡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커리큘럼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섬기는 학생들의 삶의 상황, 필요, 지적 및 영적 수준 등은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의 내용 및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성숙도 및 성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 "누가 가르칠 것인가?" 라는 교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떼어 두어 다음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삼 28:4-5)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을 보고 크게 두려워 벌벌 떨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면서도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는 것

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롬8:32,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늘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할 때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화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삼상28:6)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도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막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손을 짚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사59:1,2). 진정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수 나를 위하여 신성한 여인을 찾으라(삼상28:7)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사울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지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고인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알아보

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신18:10b). 성도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대대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 내게 네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삼상28:8-17)

사울왕은 신성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3, 14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신성한 여인이 주술을 외우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것입니다. 개혁주의신학의 정통적인 해석을 보면 1)신성한 무당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보았다는 점쟁이의 말에 사울왕은 무릎 꿇고 사무엘과 대

화하지만 얻는 것은 사울왕이 죽는다는 소리만 들게 돼 깊이 실망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맡기면 망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소망이요 평안이요 생명이입니다. 이미 모두 승리하고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니다. 감사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삼상28:18-25)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너와 너 아들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심히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울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라는 데 회개하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망한 사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둘째는 아버지들의 남편 나발, 셋째는 사울왕입니다. 이 세 부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경

고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 한 가지는, 회개(죄로부터 180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유기). 회개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성령충만하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삼상29:1-5)

다윗은 지난 십수 년을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유다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될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니다. 만약 다윗이 우방국으로 갔다면 사울은 또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블레

셋의 아가스왕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1년4개월 동안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정직하고 아가스왕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어 다윗을 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족을 치러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주일8부예배: 오후 9:00 주일9부예배: 오후 9:00 주일10부예배: 오후 9:00 주일11부예배: 오후 9:00 주일12부예배: 오후 9:00 주일13부예배: 오후 9:00 주일14부예배: 오후 9:00 주일15부예배: 오후 9:00 주일16부예배: 오후 9:00 주일17부예배: 오후 9:00 주일18부예배: 오후 9:00 주일19부예배: 오후 9:00 주일20부예배: 오후 9:00 주일21부예배: 오후 9:00 주일22부예배: 오후 9:00 주일23부예배: 오후 9:00 주일24부예배: 오후 9:00 주일25부예배: 오후 9:00 주일26부예배: 오후 9:00 주일27부예배: 오후 9:00 주일28부예배: 오후 9:00 주일29부예배: 오후 9:00 주일30부예배: 오후 9:00 주일31부예배: 오후 9:00 주일32부예배: 오후 9:00 주일33부예배: 오후 9:00 주일34부예배: 오후 9:00 주일35부예배: 오후 9:00 주일36부예배: 오후 9:00 주일37부예배: 오후 9:00 주일38부예배: 오후 9:00 주일39부예배: 오후 9:00 주일40부예배: 오후 9:00 주일41부예배: 오후 9:00 주일42부예배: 오후 9:00 주일43부예배: 오후 9:00 주일44부예배: 오후 9:00 주일45부예배: 오후 9:00 주일46부예배: 오후 9:00 주일47부예배: 오후 9:00 주일48부예배: 오후 9:00 주일49부예배: 오후 9:00 주일50부예배: 오후 9:00 주일51부예배: 오후 9:00 주일52부예배: 오후 9:00 주일53부예배: 오후 9:00 주일54부예배: 오후 9:00 주일55부예배: 오후 9:00 주일56부예배: 오후 9:00 주일57부예배: 오후 9:00 주일58부예배: 오후 9:00 주일59부예배: 오후 9:00 주일60부예배: 오후 9:00 주일61부예배: 오후 9:00 주일62부예배: 오후 9:00 주일63부예배: 오후 9:00 주일64부예배: 오후 9:00 주일65부예배: 오후 9:00 주일66부예배: 오후 9:00 주일67부예배: 오후 9:00 주일68부예배: 오후 9:00 주일69부예배: 오후 9:00 주일70부예배: 오후 9:00 주일71부예배: 오후 9:00 주일72부예배: 오후 9:00 주일73부예배: 오후 9:00 주일74부예배: 오후 9:00 주일75부예배: 오후 9:00 주일76부예배: 오후 9:00 주일77부예배: 오후 9:00 주일78부예배: 오후 9:00 주일79부예배: 오후 9:00 주일80부예배: 오후 9:00 주일81부예배: 오후 9:00 주일82부예배: 오후 9:00 주일83부예배: 오후 9:00 주일84부예배: 오후 9:00 주일85부예배: 오후 9:00 주일86부예배: 오후 9:00 주일87부예배: 오후 9:00 주일88부예배: 오후 9:00 주일89부예배: 오후 9:00 주일90부예배: 오후 9:00 주일91부예배: 오후 9:00 주일92부예배: 오후 9:00 주일93부예배: 오후 9:00 주일94부예배: 오후 9:00 주일95부예배: 오후 9:00 주일96부예배: 오후 9:00 주일97부예배: 오후 9:00 주일98부예배: 오후 9:00 주일99부예배: 오후 9:00 주일100부예배: 오후 9:00 주일101부예배: 오후 9:00 주일102부예배: 오후 9:00 주일103부예배: 오후 9:00 주일104부예배: 오후 9:00 주일105부예배: 오후 9:00 주일106부예배: 오후 9:00 주일107부예배: 오후 9:00 주일108부예배: 오후 9:00 주일109부예배: 오후 9:00 주일110부예배: 오후 9:00 주일111부예배: 오후 9:00 주일112부예배: 오후 9:00 주일113부예배: 오후 9:00 주일114부예배: 오후 9:00 주일115부예배: 오후 9:00 주일116부예배: 오후 9:00 주일117부예배: 오후 9:00 주일118부예배: 오후 9:00 주일119부예배: 오후 9:00 주일120부예배: 오후 9:00 주일121부예배: 오후 9:00 주일122부예배: 오후 9:00 주일123부예배: 오후 9:00 주일124부예배: 오후 9:00 주일125부예배: 오후 9:00 주일126부예배: 오후 9:00 주일127부예배: 오후 9:00 주일128부예배: 오후 9:00 주일129부예배: 오후 9:00 주일130부예배: 오후 9:00 주일131부예배: 오후 9:00 주일132부예배: 오후 9:00 주일133부예배: 오후 9:00 주일134부예배: 오후 9:00 주일135부예배: 오후 9:00 주일136부예배: 오후 9:00 주일137부예배: 오후 9:00 주일138부예배: 오후 9:00 주일139부예배: 오후 9:00 주일140부예배: 오후 9:00 주일141부예배: 오후 9:00 주일142부예배: 오후 9:00 주일143부예배: 오후 9:00 주일144부예배: 오후 9:00 주일145부예배: 오후 9:00 주일146부예배: 오후 9:00 주일147부예배: 오후 9:00 주일148부예배: 오후 9:00 주일149부예배: 오후 9:00 주일150부예배: 오후 9:00 주일151부예배: 오후 9:00 주일152부예배: 오후 9:00 주일153부예배: 오후 9:00 주일154부예배: 오후 9:00 주일155부예배: 오후 9:00 주일156부예배: 오후 9:00 주일157부예배: 오후 9:00 주일158부예배: 오후 9:00 주일159부예배: 오후 9:00 주일160부예배: 오후 9:00 주일161부예배: 오후 9:00 주일162부예배: 오후 9:00 주일163부예배: 오후 9:00 주일164부예배: 오후 9:00 주일165부예배: 오후 9:00 주일166부예배: 오후 9:00 주일167부예배: 오후 9:00 주일168부예배: 오후 9:00 주일169부예배: 오후 9:00 주일170부예배: 오후 9:00 주일171부예배: 오후 9:00 주일172부예배: 오후 9:00 주일173부예배: 오후 9:00 주일174부예배: 오후 9:00 주일175부예배: 오후 9:00 주일176부예배: 오후 9:00 주일177부예배: 오후 9:00 주일178부예배: 오후 9:00 주일179부예배: 오후 9:00 주일180부예배: 오후 9:00 주일181부예배: 오후 9:00 주일182부예배: 오후 9:00 주일183부예배: 오후 9:00 주일184부예배: 오후 9:00 주일185부예배: 오후 9:00 주일186부예배: 오후 9:00 주일187부예배: 오후 9:00 주일188부예배: 오후 9:00 주일189부예배: 오후 9:00 주일190부예배: 오후 9:00 주일191부예배: 오후 9:00 주일192부예배: 오후 9:00 주일193부예배: 오후 9:00 주일194부예배: 오후 9:00 주일195부예배: 오후 9:00 주일196부예배: 오후 9:00 주일197부예배: 오후 9:00 주일198부예배: 오후 9:00 주일199부예배: 오후 9:00 주일200부예배: 오후 9:00 주일201부예배: 오후 9:00 주일202부예배: 오후 9:00 주일203부예배: 오후 9:00 주일204부예배: 오후 9:00 주일205부예배: 오후 9:00 주일206부예배: 오후 9:00 주일207부예배: 오후 9:00 주일208부예배: 오후 9:00 주일209부예배: 오후 9:00 주일210부예배: 오후 9:00 주일211부예배: 오후 9:00 주일212부예배: 오후 9:00 주일213부예배: 오후 9:00 주일214부예배: 오후 9:00 주일215부예배: 오후 9:00 주일216부예배: 오후 9:00 주일217부예배: 오후 9:00 주일218부예배: 오후 9:00 주일219부예배: 오후 9:00 주일220부예배: 오후 9:00 주일221부예배: 오후 9:00 주일222부예배: 오후 9:00 주일223부예배: 오후 9:00 주일224부예배: 오후 9:00 주일225부예배: 오후 9:00 주일226부예배: 오후 9:00 주일227부예배: 오후 9:00 주일228부예배: 오후 9:00 주일229부예배: 오후 9:00 주일230부예배: 오후 9:00 주일231부예배: 오후 9:00 주일232부예배: 오후 9:00 주일233부예배: 오후 9:00 주일234부예배: 오후 9:00 주일235부예배: 오후 9:00 주일236부예배: 오후 9:00 주일237부예배: 오후 9:00 주일238부예배: 오후 9:00 주일239부예배: 오후 9:00 주일240부예배: 오후 9:00 주일241부예배: 오후 9:00 주일242부예배: 오후 9:00 주일243부예배: 오후 9:00 주일244부예배: 오후 9:00 주일245부예배: 오후 9:00 주일246부예배: 오후 9:00 주일247부예배: 오후 9:00 주일248부예배: 오후 9:00 주일249부예배: 오후 9:00 주일250부예배: 오후 9:00 주일251부예배: 오후 9:00 주일252부예배: 오후 9:00 주일253부예배: 오후 9:00 주일254부예배: 오후 9:00 주일255부예배: 오후 9:00 주일256부예배: 오후 9:00 주일257부예배: 오후 9:00 주일258부예배: 오후 9:00 주일259부예배: 오후 9:00 주일260부예배: 오후 9:00 주일261부예배: 오후 9:00 주일262부예배: 오후 9:00 주일263부예배: 오후 9:00 주일264부예배: 오후 9:00 주일265부예배: 오후 9:00 주일266부예배: 오후 9:00 주일267부예배: 오후 9:00 주일268부예배: 오후 9:00 주일269부예배: 오후 9:00 주일270부예배: 오후 9:00 주일271부예배: 오후 9:00 주일272부예배: 오후 9:00 주일273부예배: 오후 9:00 주일274부예배: 오후 9:00 주일275부예배: 오후 9:00 주일276부예배: 오후 9:00 주일277부예배: 오후 9:00 주일278부예배: 오후 9:00 주일279부예배: 오후 9:00 주일280부예배: 오후 9:00 주일281부예배: 오후 9:00 주일282부예배: 오후 9:00 주일283부예배: 오후 9:00 주일284부예배: 오후 9:00 주일285부예배: 오후 9:00 주일286부예배: 오후 9:00 주일287부예배: 오후 9:00 주일288부예배: 오후 9:00 주일289부예배: 오후 9:00 주일290부예배: 오후 9:00 주일291부예배: 오후 9:00 주일292부예배: 오후 9:00 주일293부예배: 오후 9:00 주일294부예배: 오후 9:00 주일295부예배: 오후 9:00 주일296부예배: 오후 9:00 주일297부예배: 오후 9:00 주일298부예배: 오후 9:00 주일299부예배: 오후 9:00 주일300부예배: 오후 9:00 주일301부예배: 오후 9:00 주일302부예배: 오후 9:00 주일303부예배: 오후 9:00 주일304부예배: 오후 9:00 주일305부예배: 오후 9:00 주일306부예배: 오후 9:00 주일307부예배: 오후 9:00 주일308부예배: 오후 9:00 주일309부예배: 오후 9:00 주일310부예배: 오후 9:00 주일311부예배: 오후 9:00 주일312부예배: 오후 9:00 주일313부예배: 오후 9:00 주일314부예배: 오후 9:00 주일315부예배: 오후 9:00 주일316부예배: 오후 9:00 주일317부예배: 오후 9:00 주일318부예배: 오후 9:00 주일319부예배: 오후 9:00 주일320부예배: 오후 9:00 주일321부예배: 오후 9:00 주일322부예배: 오후 9:00 주일323부예배: 오후 9:00 주일324부예배: 오후 9:00 주일325부예배: 오후 9:00 주일326부예배: 오후 9:00 주일327부예배: 오후 9:00 주일328부예배: 오후 9:00 주일329부예배: 오후 9:00 주일330부예배: 오후 9:00 주일331부예배: 오후 9:00 주일332부예배: 오후 9:00 주일333부예배: 오후 9:00 주일334부예배: 오후 9:00 주일335부예배: 오후 9:00 주일336부예배: 오후 9:00 주일337부예배: 오후 9:00 주일338부예배: 오후 9:00 주일339부예배: 오후 9:00 주일340부예배: 오후 9:00 주일341부예배: 오후 9:00 주일342부예배: 오후 9:00 주일343부예배: 오후 9:00 주일344부예배: 오후 9:00 주일345부예배: 오후 9:00 주일346부예배: 오후 9:00 주일347부예배: 오후 9:00 주일348부예배: 오후 9:00 주일349부예배: 오후 9:00 주일350부예배: 오후 9:00 주일351부예배: 오후 9:00 주일352부예배: 오후 9:00 주일353부예배: 오후 9:00 주일354부예배: 오후 9:00 주일355부예배: 오후 9:00 주일356부예배: 오후 9:00 주일357부예배: 오후 9:00 주일358부예배: 오후 9:00 주일359부예배: 오후 9:00 주일360부예배: 오후 9:00 주일361부예배: 오후 9:00 주일362부예배: 오후 9:00 주일363부예배: 오후 9:00

인/터/뷰 황의영 목사(SBM 대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리카...

지구촌 곳곳마다 말씀의 신앙실천 운동을!

본지가 매년 개최했던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초청됐던 황의영 목사(SBM 대표)가 뉴욕을 방문했다. 황 목사는 최근 SBM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종교다원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신앙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의영 목사는 1989년 10년 후 다가올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상하다가 1996년 5월 본격적으로 SBM(기독교 신앙생활개혁운동)을 시작했다.

SBM은 S-Serving God First, B-Biblically Applied Life, M-Model for Enculturation의 약자다. 캘리포니아 주에 SBM국제본부를 설립하고 SBM 한국본부를 세운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브라질,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200여회에 걸쳐 SBM 지도자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광범위하게 영향력 끼쳤다. 그런 가운데 올 1월 20주년을 기념해 남아공에 SBM 아프리카본부(본부장 정인영 선교사)를 발족하게 됐다.

황 목사는 "본부는 남아공에 있지만 짐바브웨, 케냐, 보츠와나 등에서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성경학교 수준의 ABBA(Africa Bible Bases Academy) 졸업생들에게 SBM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훈련했는데, 지난 3월, 3명에게 목사안수를 하기도 했지요. 요즘 아프리카에는 사머니즘이 혼합된 오순절 교회가 난무합니다. 비숍이라는 자가 여러 지역교회들의 헌금을 걷어가기도 하고, 신학을 배우

지도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o-Africa Prsby 장로교단을 세웠습니다"라고 최근 소식을 전했다.

SBM은 3대 목표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인 과



화, 형통의 신앙화, 긍정과 가능성의 신앙화 등이 오래 동안 강조돼왔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설교자가 매우 드물다. 그 결과 성경말씀의 뿌리

켜졌으며, 때로는 은혜 받아 가슴이 뜨거워진 것으로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황 목사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신앙생활의 기본도 올바르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주관이 강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데 오히려 자꾸 회피하는 비겁성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자기의 주장 따로, 체면 따로 실제의 품성과 인격 따로, 기도 따로 욕망 따로, 은혜 따로 열기 따로' 이중성을 지닌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것과 흡사하다고 황 목사는 역설했다.

황 목사는 "그러므로 말씀의 신앙화와 더불어 신앙의 생활화를 역설하지 않을 수가

비롯해 "사모학", "목사학",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 "목회진단학",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방", "에코웨이학습이론", "설교준비의 왕도" 등 SBM 3대 목표로 따른 교재를 포함해 5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특히 새로 개발한 교재들은 지도자중심에서 학습자중심의 창의적인 토의식 방법을 도입해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부담 없이 배우며 신앙인격과 삶을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교재 일부를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사역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황 목사가 쓴 모든 교재의 특징은 성경의 절대권위에 기초해 폭넓은 신학적 통찰과 더불어 오늘의 패러다임(paradigm)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창작이어서 호응도가 높다. 특히 에코웨이 학습이론은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한 학습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독교 교도소인 '아가페랜드'(소방교도소에 SBM 프로그램이 도입돼 재소자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황의영 목사는 1961년 서울에서 대진교단 제1호 교회를 개척해 목회와 더불어 신학교의 교수로 성역 55주년을 맞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이중성 지닌 위선적 태도 철저히 경계...참 기독교인으로

업으로 삼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중심이 종교다원주의에 깊이 물들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단세력들이 득세해 회회를 뒤흔들고 있다.

황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도 문제점이 많다"며,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축복의 신앙화, 변혁의 신앙화, 성공의 신앙

가 매우 빈약한 상태여서 말씀의 신앙화를 새로 시작해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만일 온전한 말씀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의 영적생명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성경공부를 많이 했지만 거기가 주일식방법에 따라 원직만 배우고 이론으로만 치우었다는 것. 성경을 지식으로 축적해 머리만

없다"며, "말씀을 철저히 실천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전2:15)를 은은하게 내뿜어야 한다. 마침내 기독교문화가 활짝 꽃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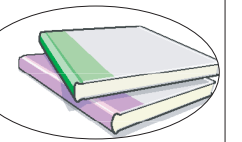
황 목사는 "목회상담원리"(1970, 생명의 말씀사)를

썼다.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한신학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많은 목회자와 제자들을 양육해오다 1972년 3월 도미, LA 미주평안교회를 개척했다.

실천신학분야에서 대신교단 최고의 학자로 꼽히고 있으며 대신총회가 수여하는 대신인상을 수상하고 총동문화로부터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은 바 있다.

sbm01@hotmail.com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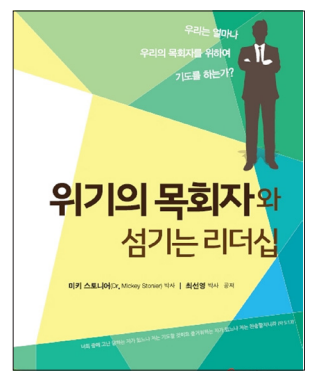
새 책 소개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

미키 스톤지-최선영 박사 공저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미키 스톤지 박사와 그의 제자이자 월드 미션대학교와 웨퍼드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최선영 박사의 공동저서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이 최근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공동저자의 한 사람인 최선영 박사가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과정 중에 스승인 미키 스톤지 박사로부터 배운 Pastoral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가?...도전

Servant Leadership의 요약된 40페이지 정도의 강의를 스승의 허락을 받고 웨퍼드 신학교에서 다년간 후학을 위해 강의를 한 내용과 앞으로 강의할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최선영 박사는 강의 때마다 많은 도전을 주었으며, 부제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가?"를 되풀이하며,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 도전과 위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가를 이 책은 묻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목회자들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신학도들에게는 "당신들도 이러한 도전을 받는다, 당신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온다"라는 메시지를 담겨있다. 깨어 미리 준비하라는 경고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담임목회자가 이러한 고난, 위기,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으로 인해 매일 매일 도전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깨어 당신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전 ANC 은누리교회 담임)는 "이 책은 어떻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다. 아주 실제적인 고민과 대답이 된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회복을 경험할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 바른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니엘 뉴먼 교수(아주사퍼시픽 대학교)는 "이 책에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상충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다. 인간은 권위를 적용하는 습관을 가리키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적용하시며 어떻게 본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내적 리더를 키워서 외적 리더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말했다.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은 조이 기독교대학점(213-380-8793)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리더가 먼저...공동체 각자가 다스려야

(1면에서 계속)

또한 분노가 부차적인 감정이라는 지식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왜 분노가 부차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상대를 답답하게 생각하며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분노의 불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분노한 상대방을 보면, 우리는 먼저 분노라는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

해야 한다. "괜찮아. 화가 날 수도 있지"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똑 같이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에 분노로 상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이는 분노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임을 이해하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뉘그러기 시작하면 그 싸움은 끝이 없다.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표현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종립적으로 표현한다. 상대에게 화가 난다는 표현을 멈추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 3자가 묘사하듯 말하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2인칭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혹은 '상황이' 어떠한다는 표현이 서로를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효과적이다.

감정이 잦아들면 무엇이 분노를 일으켰는지 다시 돌아보고 기록해보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누적해 나간다면, 자신이 무엇에 대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행동패턴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으로, 리더는 먼저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신기하리만치 공동체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치는 분노가 없으면 이미 절반의

효력을 잃는다. 한꺼번에 표출되는 여러 사람의 분노를 동시에 다스리고자 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분노를 다스리는 한 사람이 되어 또 한 사람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나누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공동체에서 감지되는 작은 분노의 표현일지라도 쉽사리 지나치지 말고, 기회로 삼아본다. 지금부터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의식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2016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성령성회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 상임회장 황경일 목사 | 사무총장 이대우 목사 | 준비위원장 전영현 목사

일시: 2016. 7. 5(화) ~ 7(목) 8:00(PM)
 장소: 영생장로교회(담임목사 이용걸)
 강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일시: 2016. 7. 5(목) 5:00(PM) - 8(금) 10:00(AM)
 장소: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숙소: Holiday Inn Express & Suites Fort Washington
 432 Pennsylvania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Tel 215-591-9000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 고시영 목사 세기물 대표회장 | 조일래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 한기홍 목사 미기물 기도연대위원장

제 18차 정기총회

이민 목회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며 나아가 교회 연합을 위해 불심양면으로 봉사해 주시는 모든 대의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래와 함께 제 18차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의원: 각교단장, 총경회장단, 각교협회장, 총경회장, 공민단 선교단체장.
- 등록비: \$100.00
- 등록처: 준비위원장 권영현목사(484-472-2571) 사무총장 이대우목사(267-577-0392) Rev. Dae Woo Lee, Pastor 1407 Huntingdon Pike, Huntingdon Valley, PA 19006
- 비행기 스킵을 보낼곳 이대우목사 Email: leedaewoo19126@gmail.com 2016년 6월 6일까지 항공편과 도착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셔야 공항라이드가 가능합니다.
- 참조 1. 항공비는 본인 부담이며, 체재비는 3박 4일간 준비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 2. 등록한 분께 한하여 대의원권을 부여합니다. 3. 7월 7일 하나투어가 주관하는 필라델피아 관광과 켈리시 성금(삼손)은 등록 선착순 40명에 한하여 Free로 제공합니다. 4. 미가를 성령성회는 참석하신 대의원과 필라델피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께 참석하여 은혜받는 집회입니다.